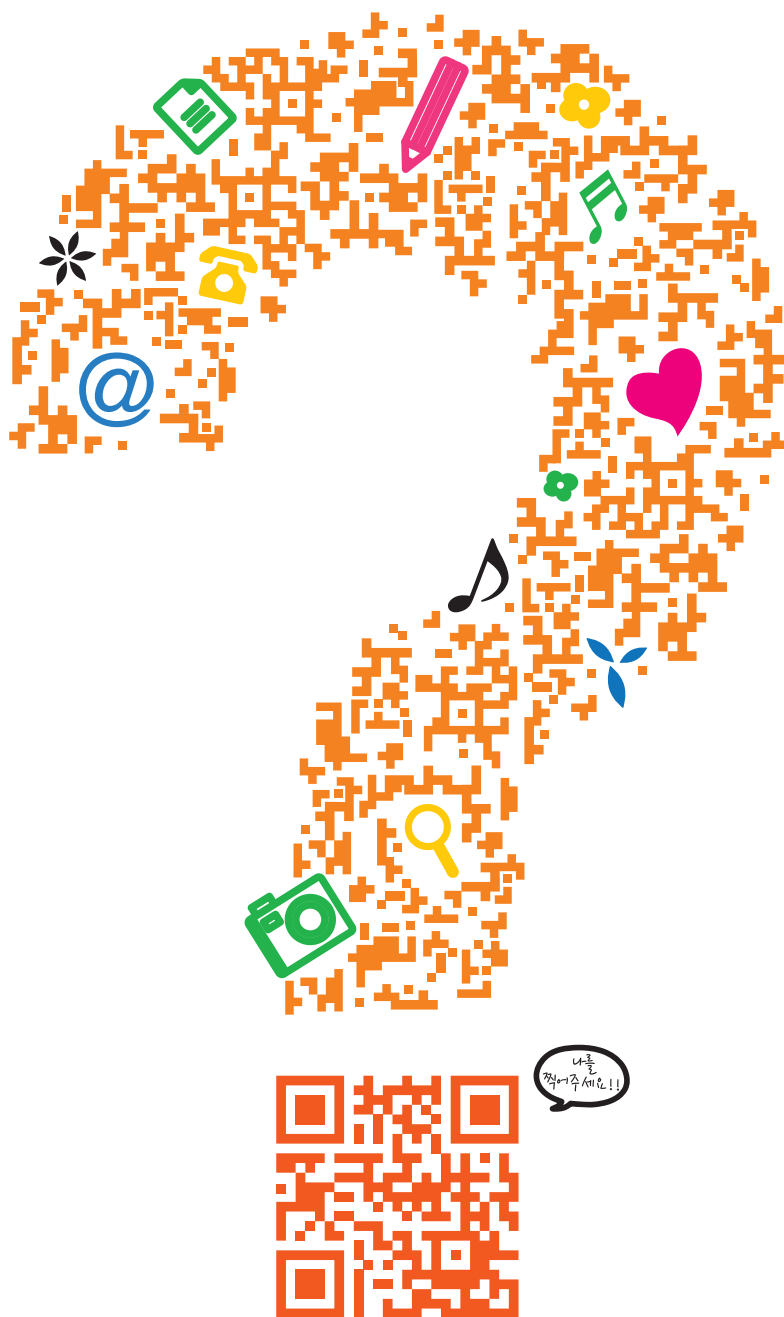
Weekly 공감

2010.12.01 No.87
gonggam.korea.kr

국가안보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 p11~31

金 金 金…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폐막 p32~37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받은 국민배우 신구 p48~49

나를 찍어주세요!!

어디로 간거죠?

문화체육관광부가 광화문에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거죠??

지금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페이지로 들어오면 청사이전에 대한 정보와 역사 그리고 푸짐한 이벤트가 진행중 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포사격 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 행위로서 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정전 이후 유례가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나아가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주민 및 장병에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11월 23일 북한의 우리 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포사격 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정전협정, 유엔헌장 제2조 제4항 등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사죄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연평도 일대 주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인 불안이나 동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특히 피해지역에서 대피 중인 주민들의 구호와 피해시설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는 남북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국제문제이므로 그 엄중함에 대하여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와 인식을 함께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천명한다. G

대한민국 국회

*국회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11월 25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북 규탄 결의안은 재석 의원 2백71명 가운데 찬성 2백61표, 반대 1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Weekly
2010.12.01
No.87(통권 188호)

Contents

표지 이야기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해병대원 두 명의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은 동료 장병들이 고인들에게 경례하고 있다.

사진 · 연합

12

32

38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12.0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28

48

특 집

北, 연평도 포격 도발

슬픔 넘어 조국 수호 결의

아이들이 재잘대는 학교도, 아래윗집 어울려 사는 아파트도 있었다. 여행객이 쉬어가는 민박집도, 만선의 기쁨을 맞아들이는 어항(漁港)도 있었다. 이렇게 살아가던 서해바다 연평도에 북한이 발사한 포탄의 불길이 쏟아졌다.
자욱한 포연 속에 생명은 스러지고 삶의 터전도 파괴됐다.
지난 3월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46용사를 잃고 비통해했던 우리 국민들은 다시금 자행된 북한의 도발에 통렬한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더욱 또렷하게 가슴에 새기는 것이 있다. 그것은 평화로운 조국의 바다, 조국의 영토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다.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86호(11월 24일자) 기획특집 '자율과 경쟁, 교육개혁의 힘'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공교육 강화로 아이들의 꿈·희망 가득

"어린 남매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이번 기획특집 기사들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데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강화,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교사들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좋은 교육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_장명화

"이번 기획특집에서 다룬 'EBS 강의만으로 대학 갈 수 있다니까!' 기사를 읽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이 EBS 수능 강의만으로도 명문대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비 충당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EBS 강의는 저희 가족에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올해 치른 수능도 EBS 교재와 강의에서 70퍼센트나 연계돼 출제됐다니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EBS를 통해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합니다."_casj007

"입학사정관제, 긍정적 변화 일으키길…"

"'공교육 인재로 키우는 입학사정관제' 기사에 눈길이 갔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이 인정받을 수 있고, 대학은 건학이념과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수에 맞춰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도록 했던 우리나라 대입 현실에서 입학사정관제가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_이윤희

86호 '사람과 삶 / 의수화가 석창우 화백'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낸 의견입니다.

"양팔이 없는데도 예술혼을 불사르는 의수화가 석창우 화백의 기사를 읽으면서 '벼랑 끝에 서도 희망이 있다'는 말을 새삼 실감합니다. 서예와 누드 크로키 기법이 절묘하게 조합된 '서예 크로키' 작품들을 보니 그가 바라본 원초적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이제 화선지가 아닌 보존성 좋은 도자기에 작품을 그리고 싶다는 석 화백의 포부가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_류진원

86호 '중점기획 / 기후변화 대응·녹색성장 실천, Me First' 기사를 읽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지구촌 환경오염이 세계 각국의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녹색성장 비전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녹색기술 전파는 그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물 관리, 저탄소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녹색기술을 전하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이 2012년까지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_선지혜

EBS 강의만으로 대학 갈 수 있다니까!

기후변화 대응·녹색성장 실천 "Me First"

알립니다

우리 국토 방방곡곡 알려주세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알리는 '우리 땅 · 하늘 · 바다 통통통' 홍보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친근하고 흥미롭게 알릴 수 있는 홍보 콘텐츠 및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 주제 | 주택, 건설·수자원, 교통·물류, 해양 등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이미지
공모 분야 | ▲사진 ▲사용자손수제작물(UCC)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 ▲국토해양부 로고&심벌 인증샷 등 총 5가지
참가 대상 | 전 국민,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가능. 1인 또는 1개 팀이 5개 부문 모두 지원 가능하며, 부문별로 3점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접수 기간 | 12월 6일까지
응모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접수 양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응모
수상자 발표 | 12월 24일 국토해양부·공모전 홈페이지 게재
국토해양부 공모전 운영사무국 ☎ 070-7122-8684
공모전 홈페이지 mltm.go.kr/2010event 국토해양부 mltm.go.kr

저작권 나눔, 저작물 리메이크 만들어주세요!

미술, 어문, 음악 등 만료저작물을 활용해 저작권 나눔 관련 저작물을 만드는 공모전이 열린다.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저작물 리메이크 공모 이벤트로 저작권 기증을 통한 저작권 나눔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 분야 | 홍보물 디자인 중 ▲포스터 디자인 ▲온라인 배너, 디지털 콘텐츠 중 ▲UCC ▲음원 등 총 4가지
참가 대상 | 전 국민,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참여 가능. 각 분야당 3점 이내 응모 가능
접수 기간 | 12월 13일까지
응모 방법 | 자유 이용 사이트(freeuse.copyright.or.kr) 내 만료저작물을 활용해 제작.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접수 양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응모
수상자 발표 | 12월 20일 공모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예정
한국저작권위원회 ☎ 02-6911-6528 공모전 홈페이지 remakecontest.co.kr

공감 퍼즐

	1				
2		3			
		4			5
	6				
7			8		
	9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12월 8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2. 우주의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신. "OOO의 은혜."
4. 사람이 산과 바다처럼 수없이 많이 모인 상태를 이르는 말이죠. "사람들의 홍수로 거리는 OOOO를 이루었다."
6. 시간이나 거리, 길이 등을 본래보다 길게 늘림. "평균수명의 OO에 따라 노년층 인구가 증가했다."
7. 좋게 평함. 또는 그런 평판이나 평가. "그 시인의 첫 시집이 평론가들의 OO을 받고 있다."
9. 아무리 해도. 이러고저러고 간에. 영영. "OOO 반성의 빛이 없다." "OOO 속셈을 모르겠다"

세 로

1. 샘에서 나오는 물.
3. 주인의 높임말.
5. "귀신 잡는 OO." "한번 OO은 영원한 OO."
6. 11월 23일 북한의 포격 도발로 큰 피해를 본 서해5도 중 한 섬.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섬으로, 조기잡이가 유명하다.
8. 막아서 못 하게 함. "굳건한 안보태세로 적의 공격을 OO하다."

〈Weekly 공감〉 85호(11월 17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결집 **4** 중심 **6** 마이스터 **7** 고니 **9** 등화가친
세로 **2** 집중 **3** 센서스 **5** 심마니 **7** 고서화 **8** 절친

〈Weekly 공감〉 85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영우 ·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배준희 ·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장주영 · 광주 동구 소태동
정광수 · 부산 해운대구 좌2동
최소연 · 전북 군산시 신영동

규칙사회로 가는 길 '공정한 사회'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동아DB

'공정한 사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공정성이란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불편부당하지 않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간식을 두 개 주고, 자신에게는 하나를 준다면 화가 나게 마련입니다. 이는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올해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 업무로 '세 가지 공정한 사회'를 제시했습니다.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하는 사회, 패자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사회입니다.
이번 경축사는 미국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를 지낸 존 롤스(1921~2002)의 '정의론'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롤스는 1971년 출간한 저서 〈정의론〉에서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에 대해 '모든 사람은 동등한 자유의 권리를 갖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직위 또는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때만 정당화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는 사람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운이 좋거나 좋지 못한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패자, 약자에게 다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칙사회에서 규칙사회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덕윤리를 이해하기 전에 법질서가 토대를 이뤄야 합니다. 탈세, 병역 기피, 부동산 재산증식 등 사회 기득권자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집니다. 기득권 계층일수록 그 사회가 요구하는 법과 질서를 앞장서서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설득력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번호 대기표처럼 누구나 수긍하는 공정한 제도들을 좀 더 체계화해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고, 그 자료를 일반 시민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또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잘못된 부분은 용기 있게 고발해 사회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공정성'에 대한 실천이 모아질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풍성한 사회, 좋은 사회,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 김지영 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대(對)국민 강연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의 세부 내용을 '공감코리아(www.korea.kr)'에서 발췌 요약해 연재합니다.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이진영 서울 도봉구 도봉1동

1. '재소자 문화교육 전문가 톰 맥길 씨 초청 워크숍'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맥길 씨는 어릴 때 폭력행위로 수감돼 문화예술교육을 받게 되면서 달라진 삶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한국의 재소자 교육을 돕기 위해 강연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에도 재소자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됐으면 합니다.

2. 올해 큰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면서 본격적인 공교육 수혜자가 됐습니다. 교원평가나 공개수업, 녹색어머니 등교지도까지 참여해보면서 상당 부분 공교육에 대한 믿음과 애착이 생겼습니다. 이번 기획특집 기사들은 학부모 입장에서 '공교육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3. 최근 불거진 감세 논란에 대해 국제적인 정책 흐름과 정부의 공약 및 정책적인 쟁점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자 서울 구로구 고척1동

1. '연극으로 하나 되는 서울 중랑구 임대아파트 주민들' 기사를 읽고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주민들의 삶에 활력소가 되고 자질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2. 이번 기획특집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며 읽었을 기사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한때 생활비의 반을 사교육비로 쓸 만큼 자녀 입시 준비로 힘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공교육이 강화되는 교육정책이 계속된다면 학교 자율화, 입학사정관제 등으로 아이들의 꿈을 이루는 '교육 대한민국'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며 작은 나눔을 베풀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들이 소개됐으면 합니다.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1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특집으로 다룬 '北,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스톤의 무게?
컬링은 19.96kg의 스톤을 하우스라는 원에 정확히 밀어 넣는 경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컬링의 스톤은 19.96kg이 아니라 장애인을 보는 세상의 시선과
전용 경기장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의 무게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 휠체어컬링 은메달, 이들이 움직인 스톤에
세상 사람들이 더 감동하고 더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는 장애인들이 하는 운동경기가 아니라 스포츠의 진정성과 가치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인간승리의 드라마입니다.
12월 12일 개막하는 제10회 광저우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300명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KOSAD 대한장애인체육회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코리아 이니셔티브' 진가 발휘할 시점

외신기자들이 본 서울 G20 정상회의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빛낸 서울 G20 정상회의는 끝났으나 그 여운은 길다. '서울선언'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했던 프랑스, 일본 외신기자들이 G20 정상회의로 세계 속에 우뚝 선 한국의 원동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바스티앙 팔레티 〈르피가로〉 서울통신원
"철저한 준비만큼 중요한 것은 정치적 요소"

서울 G20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G20 국가들이 '환율전쟁'을 벌이며 서로 대립했던 협상 테이블의 내용들은 이제 대통령실 기록보관소로 옮겨지게 된다. 이 기념물들을 통해 후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상징적인 사건인 이번 G20 정상회의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괄목할 경제성장을 거듭해온 한국에서 열린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대한민국은 G20 의장국을 맡음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무대에서 더 이상 콤플렉스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환율 문제를 둘러싸고 몇몇 국가의 정상들이 팽팽하게 대립함으로써 주요 현안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드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알아뒀으면 하는 점이다.

한국은 그동안 개최해온 다른 행사들에 비해서도 큰 도전으로 다가온 이번 정상회의를 매우 훌륭하게 치렀다. 각국 정상들은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대접과 환영을 받았다.

특별히 신경을 쓴 부분인 치안 문제는 폭력시위의 불씨조차 차단했다. 한국 정부가 이번 G20 정상회의를 범국민적 행사로 선포했기에 1988 서울올림픽과 2002 한일월드컵에 이어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듯 대외적인 부분들은 잘 진행됐다. 그러나 G20 의장국인 한국을 난처하게 만든 것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다른 정상들 간의 양보 없는 대립이었다. 이것은 분명히 다시 되씹어볼 부분이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권해룡 무역국제협력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끈기 하나만으로는 국제회의의 성공 여부를 가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적 사명감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동아DB

11월 11, 12일에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
이들은 이틀간 서울에서 더 나은 세계경제를 영위하는 틀에 관해 논의했다.

대립 앞에서 빛이 바래고 말았다. 한국의 의지가 어떠한 무역 균형 회복 메커니즘도 거부한 중국의 단호한 태도라는 암초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회의는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의 중재를 통해 최소한의 타협을 이루고 실패라는 평가를 면할 수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올림픽 유치와 비교하며 철저히 준비했다. 그러한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정치적 요소임을 이번 회의를 통해 배웠을 것이다.

또한 한국에게 이번 G20 정상회의는 성공적인 21세기형 국가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 조건들이 무엇인지 재조명해보는 기회가 됐다. 이 조건들은 외교능력과 소통, 타협 기술, 국제관계와 동맹관계 발전 추구, 그리고 세계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능력 등으로 국제무대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는 한국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들이다.

1960년대부터 한국은 의지주의, 경제성장과 성적주의를 기반으로 성공 신화를 이뤘다. 하지만 지금은 양보다 질적인 성장을 바라보아야 할 때다. 오늘날 선진국가들 사이에서는 혁신, 창조성, 열린 마음,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줄 아는 자세와 같은 능력들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미 지구촌에 대한 호기심으로 무장하고 사회를 놀라운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를 보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결산하면서 한국인들은 미래에 대한 열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G20 정상회의의 협상 테이블을 과거의 유물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상징으로 만들기 바란다.

시마야 히데아키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자
"G20 정상회의 합격점 받아도 좋아"

G7 이외의 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해 필자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생각이다. '통화, 환율, 경쟁'이라는 세계적 경제 과제의 부상으로 과거의 G20 정상회의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이목을 모은 서울 G20 정상회의는 국

제정치나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의 기세를 상징하는 무대가 됐다. 이것에 이론(異論)을 제기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보면서 한국의 존재를 다시 생각해봤다. '서울선언' 등에 나타난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에서도 한국이 선진국과 신흥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잘 해냈다는 점이 떠올랐다.

세계경제는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로부터 회복 과정에 있지만 유럽에서의 재정 불안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등 그 발걸음은 아직 불안하다. G20 정상회의 개최 직전의 세계경제는 각국이 자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움직임을 강화하려 했고, 자국 통화가치를 낮게 유도하는 '통화 경쟁'도 불사했다.

지난 11월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 협상 테이블을 마치고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

그만큼 세계경제는 균형이 결여돼 있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금융 완화에 대한 신흥국의 불만은 높아졌고 선진국 대 신흥국이라고 하는 대립축이 생겨났다. 이 구도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G20 정상회의에 부과된 과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정상 선언이나 관련 문서에 담긴 많은 합의사항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신흥국에 환율시장 개입이나 자본유입 규제를 용인한 점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표방해온 국제 협조의 장에서는 이례적인 합의였다.

의장국인 한국이 미국 등의 금융 완화로 해외 머니의 급격한 유입에 직면한 신흥 각국의 문제의식과 위기감을 헤아리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로서 행한 조정의 결과로 보인다.

"서울 G20 정상회의, 한국 알리는 데 효자 노릇 톡톡"

G20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회의는 과거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조금도 실질적 의미가 없는 '정치쇼'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 참가자 사이의 논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개최국이 '성공'이라고 하면 그 내용과는 관계없이 성공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번 G20 정상회의는 G7 이외의 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렸으며 관념적 의미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가 더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세계경제의 불균형 시정이라고 하는 의제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를 기대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적어도 한 걸음 나아간 것은 틀림없고, 합격점을 받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신흥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그다지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율 개입이나 자본규제 용인 등의 합의사항은 자본시장의 안정을 실현하는 큰 성과라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어느 나라보다도 원 시세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는 것이 시급했던 한국 자신이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한국을 알리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G8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몇 번 개최한 경험이 있는 일본을 비롯한 각국 사람들의 눈에는 솔직히 말해서 서울 G20 정상회의가 '요란하다' '야단스럽다'라고 비춰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기세 있는 한국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외국인에게 가볍게 말을 걸자' '외국인과 부딪치면 반드시 사과하자' 등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에 맞춘 매너 캠페인도 벌였다고 들었다. 호텔 종업원, 회의장 직원, G20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시민 등 모든 이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줬을 것이다.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에 즈음해 한국은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었다. 지금 그 목표에 근접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한국의 책임도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이제 일본이나 중국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을 때와는 달리 '한국은 신흥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라는 변명은 통용되지 않는다. 온실효과 가스 배출 삭감 등 세계적 분야의 모든 과제에서 한국은 지금 이상의 의무 이행과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한국은 '세계의 중심국가'로서 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진가가 발휘돼야 할 시점은 이제부터다. G

특 집

北, 연평도 포격 도발

슬픔 넘어 조국 수호 결의

아이들이 재잘대는 학교도, 아래윗집 어울려 사는 아파트도 있었다.
여행객이 쉬어가는 민박집도, 만선의 기쁨을 맞아들이는 어항(漁港)도 있었다.
이렇게 살아가던 서해바다 연평도에 북한이 발사한 포탄의 불길이 쏟아졌다.
자욱한 포연 속에 생명은 스러지고 삶의 터전도 파괴됐다.
지난 3월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46용사를 잃고 비통해했던 우리 국민들은
다시금 자행된 북한의 도발에 통렬한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더욱 또렷하게 가슴에 새기는 것이 있다.
그것은 평화로운 조국의 바다, 조국의 영토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다.

북한이 11월 23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저질러 우리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와 민가 파괴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 대응했으며, 추가 도발에 대비해 최고의 경계태세를 펼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34분쯤부터 55분까지, 또 3시 10분쯤부터 2차례에 걸쳐 서해 북한군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서 연평도를 향해 약 1백70발의 불법적인 포격 도발을 했으며 우리 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K-9 자주포로 자위권 행사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사격을 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로 우리 해병대원 서병우(21) 하사와 문광욱(20) 일병 등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했다. 또 연평도 군부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김치백(61), 배복철(60) 씨 등 민간인 2명도 사망했다.

군은 북한의 포격 도발에 따라 서해 5도 지역에 대해 '경계태세 1급'을 발령했다. '경계태세'란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국군의 방어 준비태세로, 1~3단계로 이뤄진다.

"북한의 무모한 포격 도발은 정전협정 위반"

'경계태세 1급'은 적의 침투 흔적 및 대공 용의점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최고 경계태세이며 군경, 예비군 등의 모든 작전병력이 명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즉각 출동해 전투태세를 갖춘다.

국방부는 아울러 이날 오후 3시 50분 남북 장성급회담 수

"北 무모한 도발, 단호히 대응하라"

北 추가 도발 대비 서해 5도 지역에 최고 경계태세 발령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이 이번에는 서해안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저질러 인명 살상 피해를 입혔다. 이번 도발은 1953년 정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 위로 직접 포사격이 이뤄진 데다 민간인에게도 포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연합

서해 바다의 평화를 깨뜨린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현장. 11월 23일 오후 여객선에서 바라본 연평도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석대표 명의로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경고 후에도 계속 도발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저녁 7시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발표된 '보도'를 통해 "남조선이 거듭된 경고에도 23일 13시부터 연평도 일대 우리 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저질렀다"고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으나 백령도 서쪽 및 연평도 남쪽 우리 측 지역으로 사격했다"면서 "북한의 무모한 포격 도발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11월 22일 시작된 우리 군의 호국훈련을 도발의 구실로 삼고 있으나 호국훈련은 199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연례훈련이며, 전국을 무대로 육해공군이 벌이는 합동훈련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당일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피해 상황과 향후 대책, 북한의 군사동향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8시 30분 외교안보장관회의 주재를 잠시 멈추고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해 한민구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로부터 연평도 피격 사태와 관련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물샐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군이 의연하고 당당하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 "북한 공격 몇 배로 응징하라"

앞서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직후 청와대 지하 벙커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 및 한민구 합참의장 등과의 화상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다.

합동참모본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 공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몇 배로 응징하라"며 "북한 해안포 기지 주변에 미사일 기지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군과 민간인 사상자 및 피해에 대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의 화력 도발과 관련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규탄과 함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자리에서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도발"이라며 "더욱이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어 "추가 도발 시에는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한 11월 23일 저녁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현황보고를 받고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북, 무도·개머리 지역 피해 입은 듯

한편 북한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사격으로 개머리와 무도 진지에 피탄 흔적이 식별됐고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1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 피해를 분석하려고 하나 제한적으로 식별되고 있다"며 "무도와 개머리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고 개머리 지역에는 다수의 피탄 흔적이 식별됐으며 무도 지역에서도 교통호가 매몰되는 등 피탄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군인과 민간인 구별 없이 살해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우리 민간인 거주지역에 직접 포격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민간인 거주지역 포격은 정전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이 금지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이번 도발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유사점이 존재한다. 북한은 그동안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우리 군의 함정에 사격을 가하는 형태의 도발은 여러 차례 저질렀으나 잠수함을 침투시켜 우리 군의 초계함에 어뢰를 발사하는 도발은 천안함 피격사건이 최초였다.

북한이 해상에서 저지른 사상 초유의 도발이 천안함 피격사건이라면 육상을 무대로 저지른 사상 초유의 도발이 바로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 할 수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북한은 11월 23일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사진은 지난 8월 북한이 서해 NNL을 침범하는 해안포를 발사하면서 남북 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지역.

"호국훈련 핑계로 한 의도적 도발"

민간인 겨냥한 북한 공격 6·25전쟁 이후 처음

북한 황해도 해주 해안포 기지와 약 12킬로미터 떨어진 인천 옹진군 연평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최북단 섬으로 유사시 북한의 기습을 저지하는 군사 요충지다. 민간인을 겨냥한 북한의 공격은 6·25전쟁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배경을 알아봤다.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화력 도발은 과거 북한 서해상에서 벌어진 해안포 도발 사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우리 영토에 1백70여 발의 포탄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한민구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호국훈련을 핑계로 한 의도적인 국지도발"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이 바다 위에 해안포를 발사하거나 해상에서 아군 함정에 사격을 가한 일은 있어도 이날의 도발처럼 연평도 육상에 사격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준비된 의도적 도발'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날 북한은 호국훈련 일환으로 진행된 우리 해상사격훈련을 중지하라고 통지문을 보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북한은 "호국훈련이 북한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들의 화력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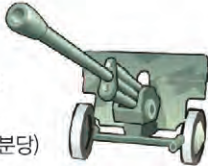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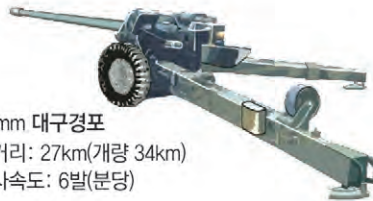
하지만 합참은 이 같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단순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호국훈련을 핑계로 도발을 일으킨 것일 뿐 호국훈련이 이번 도발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호국훈련은 1996년 이후 기존 한미 연합 팀스피리트 훈련을 대체해 매년 10월 말~11월 초 방어에 초점을 맞춰 실시해 온 육해공군이 벌이는 합동훈련이다.

"심각한 경제난 등 내부 문제의 다급성 반영된 도발 가능성"

합참 관계관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실시한 아군의 해상 사격훈련은 사격 방향이 북쪽이 아니라 서쪽과 남쪽의 우리 측 방향이었고, 사격 지역 자체도 우리 측 구역이었다"며 "해상 사격에 따른 항해 제한도 사전에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호국훈련은 사전에 예고한 훈련이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날 오전 통지문을 보냈을 때도 우리 측 입장을 이미 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북한의 해안포 배치 현황과 북한군이 갖고 있는 해안포와 우리나라 해안포 비교.

명했다"며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우리 민간인까지 피해를 보게 하는 심각한 도발을 일으켜놓고 터무니없이 호국훈련을 핑계 삼고 있다"고 북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일단 우리 영토에 직접 포탄을 떨어뜨린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 데 주력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엄청난 도발을 자행한 배경에는 일단 남북관계와 대미관계의 교착국면을 흔들어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이를 목적으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라는 '초강수'에 이어 화력 도발이라는 최악의 극단적 수단을 동원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의도대로 남북관계가 돌아가지 않자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나선 것"이라면서 "심각한 경제난 등 내부 문제의 다급성이 반영된 도발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도 "북한이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켜 돌파구를 만들려는 속셈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달 들어 북한을 방문한 미국 핵 전문가들에게 북측이 누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 2000년의 '북미 공동 코뮈니케' 내용을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 협약에 담긴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해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평화체제 수립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제적 쟁점인 NLL을 건드려야 미국이 따라 들어온다는 것을 북한은 알고 있다"면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이어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포 사격 도발을 감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으로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 있는 북한이 주민 결속용 카드로 군사적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정은 리더십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김정은 후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내부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강경한 군사적 대응으로 위기감을 조장해 주민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것"이라면서 "김정은의 리더십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부 강경 세력의 과잉충성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박사는 "북한 권력 내부의 관리 문제일 수 있다"면서 "권력 이양기에는 과잉충성을 하는 세력이 나올 수 있는데 이들이 우리 군의 훈련 상황을 빌미로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G

글 · 김병륜(국방일보 기자)

철통경계로 北 추가 도발 막는다

서해 5도 지역에 지상전력 증강·'비대칭 위협' 대비한 예산 투입

우리 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최고 경계태세를 취하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북한의 도발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전규칙을 보완하고 서해 5도에 배치되는 전력을 대폭 증강하는 등 다각적인 안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역내 안정에 기여할 한미 연합훈련이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해상에서 열렸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의 위용.

정부는 11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국정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개선·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서 첫 번째로 그간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아온 교전규칙에 대해 전면적인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교전규칙은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두다 보니 지나치게 소극적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예를 들어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달리하는 것도 개선될 내용의 하나다.

서해 5도 지역 해병대 병력 감축계획 백지화

정부는 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에 지상 전력을 포함한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Asymmetric Threat)'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투입하기로 했다. '비대칭 위협'이란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테러로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전쟁 이외 모든 형태의 위협을 말한다. 핵무기 개발로 위협해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가 전형적인 비대칭 위협의 예다.

정부는 서해 5도 전력 증강과 관련해 특히 지난 2006년 결정된 서해 5도 지역 배치 해병대의 병력 감축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북한의 포격 도발에 피해를 본 연평도 주민을 포함한 서해 5도 지역 주민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진행 중인 5·24 대북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국민의 정서, 남북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좀 더 엄격히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천안함 피격사건 때와 다름없이 남북한 모두에 대해 '냉정과 절제'를 말하고 있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안정성 보여줘야"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번과 같은 도발은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서해 지역에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 도중 서해 5도 지역의 전력 보강에 관한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서해 5도와 같은 취약지역은 국지전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군 관련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상적인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날 이 대통령과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북한의 포격 도발로 희생된 두 장병, 그리고 두 명의 민간인에 대해 애도하는 묵념을 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의 K-9 자주포가 대응사격을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이 긴급 전화통화를 갖는 등 한국과 미국 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선 서해상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9만7천 톤급)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훈련이 펼쳐졌다.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에는 우리 측에서 독도함(1만4천 톤급), 한국형 구축함(4천5백 톤급)과 호위함, 군수지원함, 대잠항공기 등이 참가했다. 미국 측에서는 순양함 카우펜스함(9천6백 톤급), 구축함 샤일로함(9천7백50톤급) 등이 참가했다. 핵잠수함은 이번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이번 연습은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역내 안정과 전쟁 억지력 강화,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 향상, 한미동맹 결의 과시 등 여러 목적을 갖고 실시됐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1월 24일 오후 한미 연합훈련 일정을 중국에 통보했으며, 한미연합사령부도 북한 측에 훈련 일정을 통보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현역부대의 군사대비태세 강화를 보장하고 전 예비군 중대의 향토방위 작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계획된 모든 예비군 일반훈련을 이날 오후 5시부로 중지한다"고 11월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실시되는 일반훈련은 내년 3월 이월보충훈련으로 실시된다. 국방부는 아울러 동원훈련은 현역부대에 입영해 실시되는 전시대비훈련이므로 여기에서 제외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G

글·박경아 기자

"北 공격, 한국 신용등급에 영향 없다"

민생 안정화 대책 논의 등 생명·재산 보호에 총력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흔들렸던 금융시장이 정부의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민생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발한 11월 23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비상경제대책팀 가동에 들어갔다.

비상경제대책팀은 국제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 수출시장, 원자재 확보, 생필품 가격 안정 등 5개 분야로 나눠 부문별로 파급효과를 점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컨퍼런스콜이나 정책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알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후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의 파장에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비상점검 체제를 즉각 가동했다. 통화금융대책반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이튿날인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해 북한 포사격 이후의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및 향후 사태 전개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거 북한 관련 사례에 비춰볼 때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 한 이번 사태의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 이후에도 3, 4일 만에 주가와 환율이 회복세로 반전된 바 있다.

11월 2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의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아울러 견실한 경제 회복세, 양호한 재정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기조, 사상 최대 수준의 외환보유액 등으로 우리 경제의 신뢰도가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외부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흡수능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과도한 불안심리로 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협조해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고 원화 및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상경제대책팀 가동… 생필품 사재기·출고 조절 등 단속

생필품 사재기, 출고 조절 등 시장 혼란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엄정히 단속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알려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하고, 지식경제부는 대외교역과 원자재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출입, 바이어·투자자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센터,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24시간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가동해 부문별 동향을 점검하며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평도의 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각종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 주택, 선박, 자동차 등 재산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고지 유예, 징수 유예 조치를 실시한다. 기간은 6월 이내이며 1회 연장된다.

주택, 선박의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하락했던 코스피, 코스닥지수가 사건 발발 사흘 만인 11월 25일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조영철 기자

이내(최대 9월 이내 재연장)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화(戰禍) 등으로 파손된 주택, 농업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인천광역시, 옹진군) 의결을 거쳐 취득세, 재산세 등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가 연평도 지역의 긴급한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피해 상황과 복구지원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민간 항공기는 연평도에서 30킬로미터쯤 떨어진 서해항로를 7킬로미터 이상의 고도로 날아다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상태지만 저고도로 나는 시계비행 항공기(헬리콥터, 경비행기 등)의 운항은 금지됐다.

국토해양부는 항공교통센터 등 관제기관에 항공기 운항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관제 강화를 지시했으며 항공사에도 최대한 주의 운항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당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3일 오후 긴급 주요 간부회의를 열고 서해 5도(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에 있는 9개 학교와 휴전선에 인접한 경기, 강원지역 초중고교에 휴업령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에는 연평도와 인근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긴급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로 현역부대의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전 예비군중대의 향토방위 작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실시될 예정이던 모든 예비군 일반훈련이 24일 오후 5시부터 중지됐다. 이번에 진행되지 못한 일반훈련은 내년 3월 이월 보통훈련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연평도 시설 피해 복구·장비 등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월 24일 국회에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민생 안정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총리를 비롯한 전 내각은 일치단결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발 빠른 대응 노력에 힘입어 국내 전문가들과 신용평가기관들은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북한의 공격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퓨어스(S&P)는 한국의 현 신용등급에 이미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공격 위험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건이 한국에 대한 투자나 여타 신용측정 지표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G

글·김지영 기자

"영원한 영웅"… 그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연평도 전사자 2명, 1계급 진급·화랑무공훈장 추서

**말년휴가 떠나는 날 배는 뜨지 못했다.
꽃다운 나이에 전사한 두 장병에 대한 추모 열기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란 추모시에 슬픔을 함께했던 우리 국민은 이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한 네티즌의 추모시 '집에 가라 아들들아'에 또 한 번 가슴 저미고 있다. 우리의 친구이자 동생이자 아들이었던 두 장병은 영결식을 마치고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고(故) 서정우 하사
(21·해병대 1088기)

"내 군 생활에도 말년에 침대를 써본다. (말년휴가를 나가야 하니) 내일 날씨 안 좋다던데 배 꼭 뜨길 기도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고(故) 서정우(21·해병대 1088기) 하사는 11월 22일 개인 홈페이지에 이런 일기를 썼다. 공격 전날 밤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공격을 감행한 날은 서 하사의 14박15일 말년휴가 출발일이었다. 그는 12월로 예정된 전역을 기다리고 있었다. 원래 11월 초 휴가를 나가려다가 서울 G20 정상회의 때문에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1월 7일 홈페이지에는 "집에 가기가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일기를 올렸다. 군 생활로 단련된 자신의 단단한 몸을 자랑하는 사진도 올렸다. 입대하기 전에 머리를 기른 사진도 있었다.

서 하사는 전역 후의 희망에 찬 생활을 꿈꿨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로 결국 집으로 향하는 배는 뜨지 못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미니홈피엔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후배인 듯한 한 방문자는 모든 게 착각이길 바라는 글을 올렸다.

"형, 왜 전화 안 받아? 형, 어머니 폰으로 전화했는데 왜, 왜 안 받아? 오늘 휴가 나온 거 맞잖아. 빨리 좀 받아 제발… 동명이인이잖아. 사람들은 왜 여기 와서 난린데, 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 안 죽은 사람한테. 나 한국 가면 제주도 놀러 가기로 했잖아. 나 이렇게 울고 있는 거 처음이야. 그니까 전화 받아, 영화 보고 있는 거지? 장난치는 거면 형 다신 안 봐."

고(故) 문광욱 일병
(20·해병대 1124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한바탕 꿈이어야 돼요. 이럴 순 없어요."

어머니의 오열에도 사진 속의 그는 아무 말이 없다.

11월 23일 고 서정우 하사와 함께 사망한 고 문광욱(20·해병대 1124기) 일병은 올해 8월 훈련소에 입소한 신병이었다. 인터넷엔 그가 훈련소 시절 내무반 동기들과 찍은 사진이 남아 있다. 그가 훈련소에 있던 9월 5일, 문 일병의 아버지 문영조(47) 씨는 아들의 사진 밑에 "문광욱, 우리 아들 든든하고 멋지다"라는 답글을 달았다. 문 일병은 성실하고 밝은 스무 살 청년이었다. 문 일병의 집인 전북 군산시 수송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가족들의 통곡이 끊이지 않았다.

문 일병의 부모가 비보를 들은 것은 23일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집에는 아버지 문 씨와 어머니, 여동생, 큰아버지 문영구(57) 씨가 모여 있었다. 영구 씨는 "광욱이가 어제 엄마에게 전화해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게 마지막 전화가 되고 말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문 일병은 군장대학 1학년(신재생에너지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8월 입대했다가 최근 연평도로 배치됐다. 영구 씨는 "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자기 갈 길을 찾겠다며 1학기를 마치고 곧바로 군에 지원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통곡했다.

문 일병은 2남1녀 가운데 차남이다. 학교에서도 수업 시작하기 20분 전에 와서 강의실을 정리해둘 정도로 성실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빈소를 찾아 전사자들의 영정 앞에 헌화, 분향한 뒤 화랑무공훈장을 직접 추서했다.

한다. 그를 가르쳤던 이희승 교수는 "뉴스에서 문광욱이라는 이름이 나와 설마설마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며 "늘 솔선수범하고 성적도 뛰어났던 학생"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어차피 취업을 하려면 빨리 군대를 다녀오는 게 유리할 것 같다며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올해 8월, 해병대 자원입대했는데…"

한편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이용훈 대법원장,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등 각계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유족들에게 "일본 국민을 대표해서 애도를 표한다"는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해병대 사이트와 전사자들의 모교인 단국대와 군장대 사이트, 각 포털에 설치된 사이버 분향소에도 네티즌들의 추모가 줄을 잇고 있다. 아들이 해병대 훈련소에 있다고 밝힌 김용자 씨는 해병대 사이버 분향소에 "남의 일이 아닌 내 아들과 같은데 가슴이 답답하고 짠합니다"라는 추모사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두 전사자의 영결식은 11월 27일 오전 10시 국군수도병원 체육관에서 열렸다. 해병대 최고 예우인 해병대장으로 엄수됐으며, 이날 오후 3시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안장식을 가졌다.

해병대사령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2명에 대해 화랑무공훈장 포상과 1계급 특진, 보상금 지급 등을 결정해 젊은 영웅들의 가는 길을 예우했다. G

글 · 장대석(중앙일보 기자)

사이버분향소 wwww.navy.mil.kr/bbs/ucc/memorialList2.html

〈연평도 전사자 추모시〉

집에 가라 아들들아

기다리던 마지막 휴가잖니
어딜 돌아가느냐
어제 하루 종일 설레임으로 잠 못 든 고단한 몸인데
어딜 돌아가느냐

앞만 봐라 앞만 봐라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선착장이잖니
뒤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아무리 너희들에게는 어제까지 받들고 지켜주던
또 다른 고향이라지만
거기에는 불 포탄이 떨어진단다
뒤돌아보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어서 가야지

못된 녀석들 나쁜 녀석들
어머니가 너희 온다고 손수 차린 밥상 식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고대한 엄마 품도 단숨에 고민 없이 사방팔방
떨어지는 포격 속에
엄마 품을 뒤로하고 전우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니
전우들 품으로 돌아가던 그때
매몰찬 배신의 불 포탄이 울 아들 둘을 잡아갔네
자랑스러운 울 아들 거침없는 울 아들
울 아들들은 결국 연평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네

집에 가라고 부추기던 엄마 품을 떠나더니
전우 품에서 나라의 아들이 되었구나
세상에서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충성스러운 붉은 명찰 전우를 위하던 노란 마음

그날 선착장을 머물던 설레이던 넋이나마
언제든 원한다면 날 수 있는 비둘기 되어 훨훨 날아
바다 건너 엄마 품으로 돌아가려무나
그렇게 그렇게 나라의 아들로서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가려무나

장하다 못난 녀석들아
장하다 울 아들들아

출처–네티즌 박민옥 씨 블로그

KOR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北 도발, '단호한 응징'만이 최선의 방책

연합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북한의 비인도적인 무차별 포격으로 연평도가 불타고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을 비롯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 군부대를 직접 조준했고, 국제사회에서도 금기시되고 있는 민간인 살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계획된 도발이 분명하다. 또한 1953년 휴전협정이 발효된 후 최초로 우리 영토를 직접 포격한 것으로서 국제법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불가침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적 기지를 타격하는 등 몇 배의 응징을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핵을 미끼로 한 북한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확고한 대북원칙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왔다. 이에 북한의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됐고, 후계자로 내세운 김정은마저 북한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등 체제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됐다. 이에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고, 내부 동요 방지와 군부의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긴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북한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첫째, 단호한 응징이 중요하다. 북한이 감히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 도발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음에도 제대로 된 응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은 국가와 국민, 체제를 위협하는 적의 도발을 응징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시에는 다시는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둘째,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유사시 적의 도발을 격멸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 안보의 근간이다. 차제에 더욱 튼튼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

셋째, 장병 모두가 결전의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 군인은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란 두려워한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국군의 임무는 평상시에는 전쟁 억제에 최선을 다하되, 유사시에는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것이다. "물러섬은 비겁하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령을 가슴속에 담아야 한다.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반드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해올 경우 단호한 응징이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장병 모두가 결연한 의지로 조국 수호에 매진해주기를 당부한다. G

조영철 기자

동아DB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현장 모습. 11월 23일 북한의 포격을 받은 해병대 연평부대의 한 대원이 K-9 자주포 위에서 반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자주포 옆으로 불길이 번지고 부대 주변이 시커먼 연기에 휩싸여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연평도 해병대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들아 '專心致志' 상기해다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늦가을의 정취를 느낄 여유도 없이 전장의 공포 속에서 얼마나 놀랬니. 아빠 책상에는 연평도 피폭 사진을 올려놓고 있단다. 너의 고통, 너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고 싶은 심정으로 사진을 보면서 그 참혹한 현장을 상상하며 너를 눈에 그린다. 전사한 친구가 너의 중대 선임이라니 아빠도 소름이 끼치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응징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번 일로 우리 가족,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슴 졸이며 지난밤을 보냈을 거야. 늦게나마 너의 무사함을 접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만 그래도 머리 저 한구석은 개운하지가 않구나.

이왕지사 지나간 일은 접어두고 지금부터다. 긴장의 끈을 불끈 쥐어라. 지금부터 사태가 수습되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거라. 정신적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니까.

언젠가 너에게 해준 말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전심치지(專心致志·마음을 오로지하면 뜻을 이룰 수 있다)'란 말을 상기해라. 마음가짐을 한 방향으로 전념하면서 생활하란 얘기야. 물론 간부들이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도하겠지만 너의 앞가림은 너 스스로 하는 것이 좋겠지.

아빠는 너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구나.

첫째, 정신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키며 마인드 컨트롤 훈련을 하거라. 둘째, 간부들의 통제에 순응하고 후임병을 정으로 지도하거라. 전장의 공포를 느꼈던 사람은 정신적 충격을 못 이겨 또 다른 행동, 돌발행동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꼭 명심하고 실천하거라.

너를 믿는다. 아들아! 지난번 휴가는 우리 부자지간에 좋은 추억거리였지. 서리산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정글 숲을 헤치며 "아빠 이건 해병대 훈련보다 더 힘들어요"라고 했던 말 기억하지. 춘천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아빠를 응원 나와서 골인 지점에서 "아빠"를 외치며 사진 찍었던 그 순간들이 생각나. 닭갈비와 소주 한잔 했던 소중한 기억들도.

다음번 휴가 때는 더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보자.

아무튼 정신 가다듬고 아빠가 주문한 두 가지 사항 꼭 실천하여 선임에게는 신뢰를 받고 후임에게는 따뜻한 정을 베푸는 해병이 되거라. 아빠는 해병인 너가 자랑스럽다. 먼 훗날 좋은 추억이 되는 병영생활이 되도록 하여라. 가족들을 비롯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의 안녕을 기원한다.

2010년 11월 24일 밤늦은 시간에
암흑 같은 밤바다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너를 생각하면서 몇 자 적어본 아빠가

(추신) 우체국에 가서 책자 한 권과 아빠 사진을 동봉해 등기우편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연평도 지역은 배달이 안 된다고 해 이렇게라도 소식 전하고 싶다. G

글·양태용(연평부대 중화기중대 상병 양갑동 아버지)

*이 글은 조선일보 11월 26일자 A11면에 실렸던 기고문으로 기고자와 조선일보의 허락하에 게재했습니다.

조영철 기자

11월 24일 해경 함정을 타고 연평도를 출발해 인천 해경부두에 도착한 연평도 주민들.

인천으로 대피한 연평도 주민들의 '분노'

"정말 걔네(북한군)들은 사람도 아니야"

연평도 주민들의 놀란 가슴은 좀체 가라앉지 않는다. 더 큰 충격은 그동안 한없이 자유롭고 아름답기만 했던 자신들의 터전이 여러모로 예사롭지 않은 곳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들은 북한이 쏜 포탄의 굉음을 들으며 작금의 남북 상황 그리고 연평도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다급히 인천으로 건너온 연평도 주민들을 만나 솔직한 심경을 들어봤다.

"담배 있습니까?"

11월 24일 오후 2시 30분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의 대형 찜질방 '인스파월드' 건물 앞 주차장에서 마주친 연평도 주민 라재경(45) 씨는 한숨을 내쉬며 뭔가 속에 있는 말도 함께 뿜어내고 싶은 듯 연신 담배를 찾았다.

인스파월드 측은 따로 방을 마련해 연평도 주민들이 당분간 찜질방 시설도 함께 이용하며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라 씨는 일단 찜질방에 도착한 뒤, 모친과 아들을 서울의 고모 집으로 보낸 다음에야 거친 숨을 돌렸다. 연평도 포격사건 후 24시간이 지난 느낌은 어떨까. 라 씨는 "눈앞이 하얗더라고요. 할머니들이 기름을 집에 저장해 두거든요. 그게 발화가 돼서 펑펑 터지는데 여기가 어딘가 싶더라고요"라고 했다. 그의 말에서는 당시의 긴박감이 절실하게 묻어났다.

라 씨는 대피소로 피신해 불안한 밤을 뜬눈으로 보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고 한다. 특히 30여 년 전 만들어놓은 대피소를 정말 대피 용도로 이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대피소 들어가 있어 보니 북한과의 '거리' 새삼 느껴"

"얼마 전에 대피소를 개·보수할 때까지도 잘 몰랐죠. 이번에 처음으로 대피소로 들어가 밥 구경조차 못하며 있어 보니 북한과의 '거리'를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라 씨는 포격이 멈춘 뒤 마을에 떨어진 포탄 탄피까지 확인했다. 정말 포탄이 연평도에 떨어졌는지 믿어지지 않아서였다. 육안으로 본 탄피의 크기는 80센티미터 정도. 탄피 무게만 4킬로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그램 가까운 중량이었다. 그제야 보통 상황이 아님을 직감했다.

"막상 그 순간엔 덤덤하더라고요. 이젠 오히려 김정일한테 다시 한 번 그 당시를 재현해달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남 말을 잘 안 듣는 그들이니까 그렇게 해도 또 쏘지는 않겠죠."

그 시간 찜질방 2층 식당에서는 연평도 주민 50여 명이 만 하루 만에야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들 따끈한 미역국에 밥을 가득 말아 김치, 취나물, 오징어 무침 등 밑반찬을 얹어 '후루룩' 허기를 채웠다. 하지만 식당 구석에 앉아 있던 차상익(75) 씨는 밥 몇 술을 뜨는 둥 마는 둥 하다 결국 수저를 놓았다.

"연평도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큰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고 작은아들이 청주에 산다는 차 씨는 11월 23일 오후 아내 김선순(71) 씨의 김장을 도와주다 황급히 집을 뛰쳐나왔다. 6·25전쟁으로 고향인 황해도에서 피난을 내려와 연평도에 뿌리내린 지 60년. 아직도 시야 너머로 보이는 고향에 가고픈 마음이 굴뚝같지만 이번 포격으로 그나마 북한에 대해 얼마 남아 있지 않던 그리움과 기대감이 원망으로 변했다.

"천안함 때는 함대잖아. TV 보면서 설마 민간인들한테까지 그러겠냐고 생각했지. 정말 쟤네(북한군)들은 사람도 아니야. 사상이 다르면 자기 가족까지도 총, 포로 쏘는 놈들이니 무슨 말을 하겠어.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해도 계속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언젠간 만날 수 있겠구나 기대했는데 저놈들 때문에…."

차 씨는 연평도 터전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었다. 앞으로도 연평도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말도 못하지. 제2의 고향인데. 막상 떠나오니 연평도 생각이 많이 나. 그런데 앞으로 북한은 우리가 먼저 싸움 걸었다고 둘러대면서 연평도를 또 노릴 수도 있지 않겠어? 이러면 연평도가 사라질 수도 있어. 주민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 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줘야 해. 주민들도 바짝 긴장해야 하고."

바닷가에서 굴을 따다 피신했다는 최 씨(72) 할머니는 "6·25 피난 때보다 더 무서웠다. 해병대원들이 있어 쉽게 넘어오지 못했던 저들이 정말 미쳤다 보다"며 편히 연평도로 들어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연평도에 대한 애착만큼은 변함이 없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크게 놀랐어도 연평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난생처음 포탄을 보고 놀랐던 박사빈(11) 군은 당시 상황을 묻자 굵은 눈물부터 주르르 흘렸다. 박 군의 부친은 해병대 연평부대 박상찬 상사. 사고 직후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았던 탓에 누가 연평도 이야기만 해도 눈물을 흘린다. 그래도 연평도에 대해 무한한 사랑을 보낸다.

"아빠가 꼭 연평도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하고 형하고 연평도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아빠를 위해서라면 괜찮아요."

김규진(14) 군도 "북한과의 상황이 달라져서 빨리 연평도의 학교로 돌아가 선생님을 만나고 수업도 하고 싶다"고 했다.

오후 4시쯤 찜질방 TV에서 뉴스를 통해 연평도의 마을 모습이 계속 방영되고 있을 무렵, 연평도에서 피신해온 어린 소녀들도 TV 화면을 보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와~ 우리 연평도다." '우리 연평도.' 국민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말이다. G

글·유재영 기자

연평해전과 천안함 유족 반응

"한반도, 종전 아닌 휴전 상태임을 명심해야"

연합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해병대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합동분향소에 11월 24일 오후 박형준 전 천안함 유가족 대표와 가족들이 찾아와 조문하고 있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의 유족들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 유족들은 사건 발생 직후 포격으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눴다. 유족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을 북한을 다시 보는 계기로 삼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박동혁 병장의 부친 박남준 씨는 "국민은 한반도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황도현 중사의 부친 황은태 씨는 "수해다 흉년이다 해서 도와줬더니 돌아온 건 수백 발 포탄이었다"며 "이제는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피격사건 유가족들은 특히 이번 사건을 천안함 사건 당시를 되새기는 계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 대표인 고 이용상 하사 부친 이인옥 씨는 "천안함 사건 때처럼 이번 사건도 분명히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못 박았다. 고 정범구 병장의 이모부 송민석 씨는 "국민 중 일부는 아직도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데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게 명백해졌다"며 "다시 국민이 한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해병들… 부디 좋은 곳으로…”

해병대전우회 성명 통해 北 도발 강력 대응 요구

“사랑하는 나의 해병들… 부디 좋은 곳으로 가거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해병대 병사 2명이 희생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병대 출신 가수 이정을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해병대전우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소설가 이외수 씨는 트위터로 국민의 나라사랑과 단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이 연평부대 병사들의 내무반과 훈련장 등에 조준 포격해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분통을 참을 수 없다. 모든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라.”

해병대전우회는 11월 24일 성명을 내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전우회는 “북의 폭력집단을 두둔하며 정부의 발표에 갖은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들이 존재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이 수없이 많은 도발을 할 때마다 친북좌파 세력들은 북한을 옹호하며 정부를 비방하는 목소리를 국내외에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힘 있는 군대가 있어야 강한 국력을 가질 수 있으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병대를 전역한 연예인들도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전사한 해병대원들의 희생에 애도를 표했다. 가수 김흥국(51)과 양아들인 가수 이정(29)은 희생 장병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흥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소식을 듣고 분통이 터졌다. 온 국민이 나라를 위해 20대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장병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유족을 위로했다.

해병대 1080기로 지난 8월 전역한 이정은 자신의 트위터에 “서정우, 문광욱… 사랑하는 나의 해병들… 부디 더 좋은 곳으로 가 편해지거라”라는 글을 올려 전사한 장병들을 애도했다.

동아DB

11월 26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해병대 병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해병대 995기 특수수색대 출신인 배우 정석원(25)은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정말 화가 난다. 생각할수록 분하다. 하지만 전쟁은 아니다. 전쟁은 절대…”라며 “우리 두 해병 후배님, 서정우 문광욱 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정말…”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해병대 전역 연예인, 전사한 해병대원 애도 물결

개그맨 임혁필(38)도 미니홈피에 “제대한 지 15년이 됐지만 같은 해병이기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병 제708기 임혁필”이라는 글을 남겼다. 해병대 조교 출신인 배우 최필립(31)도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문 다녀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해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잠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갈뿐이다!’ 필승!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붉은 명찰 해병대원의 명복을 빕니다”며 조의를 표했다.

다른 연예인들도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해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에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탤런트 김정은(34)은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진 11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 이름이 김정은인 게 오늘은 정말 속상해”라는 글을 올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정은과 동명이인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가수 하하(31)도 같은 날 “귀한 생명을 잃은 그들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자”는 글을 올렸다. 하하는 또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된 장난글이 단체 문자메시지와 트위터를 통해 유포된다는 것을 알고 “이 상황에 장난 문자질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룹 슈프림팀의 멤버 사이먼디(24)는 연평도 소식을 실시간으로 재전송하며 “확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명피해

mcst.go.kr KOREA 문화체육관광부
홍보

연평도에서 전사한 해병대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해병대 출신 가수 김흥국(오른쪽), 이정 씨가 11월 24일 고인들에게 경례하고 있다.

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고요. 노 워(NO WAR)"라는 글을 남겼다. 방송인 박경림(31)은 "이런 때일수록 정확한 소식에 귀 기울이고 온 국민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차분한 대처를 당부했는가 하면 MBC 오상진(30) 아나운서는 "청계산 어귀. 백령도 하늘을 향한 구름무리. 가슴이 아파온다"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다.

배우 박신혜(20)는 "마음이 아파요. 평화를 주장하던 모든 국민의 마음이 무너져내리는 순간이네요"라며 "제발 더 이상의 부상자가 나오지 않길…"이라고 우려의 글을 남겼다. 탤런트 이다해(26)는 "충격이네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도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는 뉴스, 북한의 도발행위… 불바다가 된 연평도를 보며 가슴이 터질 듯 분노가 차오릅니다. 우리 연평도 주민들 피해 없길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간절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이외수 "비록 늙었으나 총 들고 방아쇠 당길 힘 남아 있다"

소설가 이외수(64) 씨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전장에 나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씨는 23일 오후 북한이 연평도에 포탄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나는 비록 늙었으나 아직도 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길 힘은 남아 있다. 위기 상황이 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전장으로 달려가겠다"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또한 "뉴스를 계속 시청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 바란다. 전쟁이 그리 쉽게 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은 전례가 드문 일에 해당한다. 정부의 적절하고도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 국민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이번 연평도 폭격으로 전사한 두 장병에 대해서도 "이 나라에서 살면 청춘은 봄이 아니라 겨울이었나, 피지도 못한 꽃들이 무참히 지고 말았구나"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6·25전쟁 당시 최강의 무적부대로 용맹을 떨친 '백골부대' 출신으로 〈대전쟁〉이라는 자서전을 펴낸 김종민(90) 예비역 육군대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삶의 대부분을 군인으로 살았고 생사를 넘나드는 전선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그는 "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을 응징하지 못하는지 답답하다"며 "지난 3월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했을 때 몇 배 강하게 응징했다면 북한이 이런 일을 벌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명을 바쳐 싸워 조국을 지킨 노병은 "불멸의 조국 수호 정신을 계승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한 노병은 결코 죽지도, 잊히지도 않을 것"이라며 호국정신을 강조했다. G

글·김지영 기자

“적 사격 끝난 후 1분 만에 대응”

‘연평도 포격’ 유언비어 실상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국민은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일부 언론과 인터넷에서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으나 이에 동조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위기가 닥칠수록 단합된 마음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Q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전에 우리 군이 북한을 자극했나.

A 전혀 그렇지 않다. 11월 23일 오전 10시 15분부터 북한의 도발 시점인 오후 2시 34분까지 우리 군의 서북 도서 부대는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사격은 연례적인 해상사격훈련의 일환이었고, 우리 군의 훈련 사격 방향도 서쪽과 남쪽을 향했을 뿐 북쪽 방향이 아니어서 북한이 위협을 거론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Q 우리 군의 해상사격훈련이 호국훈련의 일환이었나.

A 아니다. 우리 군의 해상사격훈련은 북한이 거론하는 호국훈련의 일환이 아니라 별도로 실시한 연례적인 훈련이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의 이유로 우리 군의 ‘호국훈련’을 들고 있으나 우리 군은 “호국훈련이 실시되고 있었지만 해상사격훈련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 진행된 통상적인 훈련”이라며 “북한이 호국훈련을 도발의 이유로 설명한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Q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측 대응은 적절했나.

A 적 사격 종료 1분 만에 아군이 사격을 시작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합참 주요 관계관들은 단호한 어조로 “연평부대의 대응이 적정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포격 도발을 시작한 것은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이고, 우리 군의 대응사격 첫 포탄이 발사된 것은 13분 뒤인 오후 2시 47분이었다. 13분이라는 시간만으로 보자면 반응 속도가 느렸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합참 관계관은 “북한이 아군 포상에 직접 사격을 가해와 아군이 일시적으로 소산(消散·흩어져 피함)해야 하는

동트는 아침 연평도를 지키는 우리 병사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동아DB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상황이었다"고 당시 사정을 설명한 후 "적 사격이 끝난 후 1분 만에 신속하게 대응사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즉 사격이 끝나고 1분 후에 우리가 곧바로 사격했다는 것은 그만큼 연평부대 장병들이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 사격을 하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며, 포병의 사격 시스템을 잘 이해하면 우리 해병대 용사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거꾸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은 연평도에서 훈련 사격을 위해 자주포의 사격 방향을 (남쪽으로) 전환한 상태였기 때문에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 사격을 하려면 준비시간이 필요했으며, 포탄이 떨어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13분 만에 대응한 것은 적절하면서도 잘 훈련된 부대만이 할 수 있는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Q 우리 군의 80여 발 대응사격은 적절한가.

A 북한이 1백70여 발의 사격을 가한 데 비해 우리 군이 80여 발만 대응사격을 한 것에 대해 적정한 대응인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신현돈 합참 작전기획부장은 "북한이 다량의 포탄을 여러 군데에 분산해 사격했기 때문에 포탄 발수를 단시간에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 지휘관이 전투감각으로, 통찰력으로 이를 평가해 대응 수준을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신 작전기획부장은 "도발 종료 후 밤새 분석 평가한 결과 총 1백70발 정도로 추산한 것이지 적 도발 직후에는 정확하게 포탄 발사 수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Q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가.

A 북한 해안포의 도발 징후는 포구 개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군 해안포는 평소에도 수시로 포구 개방 등 조치를 취해 도발 가능성을 정확하게 사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관도 "북한 해안의 포문 개방 등이 식별됐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관은 "하지만 아군이 사격훈련 중이었고 각급 제대의 위기조치반들을 소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Q 북한이 사용한 해안포와 곡사포, 방사포란 무엇인가.

A 해안포는 주로 적의 함선을 쏘기 위해 해안 요새에 설치한 화포로 북한은 사거리 27킬로미터까지의 해안포를 옹진반도 등에 배치하고 있다. 곡사포란 포물선 탄도를 가지며, 장애물 뒤에 있는 적을 사격하거나 적 후방을 교란할 때 사용한다. 구경 1백~2백 밀리미터 이하의 단포신(短砲身) 화포류의 총칭이다. 방사포란 다수의 발사관을 통해 단거리 무유도 로켓을 발사하는 화포로 우리 군은 '다연장 로켓'으로 부르는데, 같은 크기의 곡사포에 비해 살상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이번에 대량 인명살상용 1백22밀리미터 방사포도 함께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군도 사거리 30킬로미터의 곡사포, 40킬로미터의 K-9 자주포 등을 서해안에 배치하고 있다.

데프콘·워치콘·경계태세의 성격과 영향 범위

군의 경계강화 종류	성격	영향 범위	단계
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	정규전에 대비해 발령하는 전투준비태세	전 군대	총 5단계. 한국은 항시 데프콘 4단계 유지. 데프콘 2가 발령되면 예비군이 소집되고 데프콘 1은 전쟁 준비 돌입
워치콘(Watch Condition)	북한의 군사 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	데프콘 선정 기준	총 5단계. 평소 '잠재적 위협이 존재해 감시할 필요가 있는 상태'인 4단계를 유지하다 전쟁 태세에 가까워질수록 숫자가 낮아진다.
경계태세	국지도발에 대비한 비상경계명령. 이번엔 '진돗개'에서 '경계태세'라는 용어로 관리	국지도발이 일어난 해당 지역	총 3단계. 평소 '경계태세 3' 유지. 무장공비 침투 등 상황 시 '경계태세 2'로 올라가고, 그보다 더 심각하면 '경계태세 1'로 격상

Q 데프콘, 워치콘, 경계태세란.

A 군의 경계태세 강화를 위한 비상경계 지침이다. 북한군 도발에 따라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될 때마다 언론에 자주 오르는 군사용어는 데프콘, 워치콘, 경계태세 등이다.

데프콘(Defense Readiness Condition)은 정규전에 대비해 발령하는 전투준비태세를 말한다. 데프콘은 총 5단계로 5단계는 평시 상태, 4단계는 대비 상태를 의미하며, 데프콘 1은 전쟁 준비에 돌입한다.

워치콘(Watch Condition)은 데프콘의 판단 근거로, 북한의 군사 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를 말한다. 격상 발령은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 간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

반면에 '경계태세'는 무장공비 등 국지도발에 대비한 비상경계명령이다. 군은 국지도발 상황에서 이전까지는 '진돗개'를 발령했으나 이번에는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계태세'라는 용어로 관리하고 있다. 경계태세는 평소 3등급을 유지하며, '경계태세 1'이 발령되면 해당 지역의 군경, 예비군 등의 모든 작전병력이 전투태세를 갖춘다. G 글·박경아 기자

"민간인 공격한 北 도발 용납할 수 없다"

유엔·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북한의 호전적 행동 비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유엔, 미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도 한목소리로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을 비판하면서 무모한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에 대해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정세를 긴장시키는 것은 물론, 민간인까지 공격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1월 23일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한국전이 끝난 이후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공격을 비난하고 즉각적인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해안포 사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에 '교전행위의 정지와 휴전협정의 전면적인 준수'를 요구했다.

또 "미국은 한국의 방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월 23일 새벽 3시 55분께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의 전화보고를 받고 '격노했다'고 빌 버튼 백악관 부대변인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팀 수뇌부 회의를 소집해

EPA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유엔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확고부동한 지원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1월 24일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방어 약속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동북아 평화·안정 위해 방어 약속 기억하고 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북한은 휴전협정에 따르고 국제사회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며 자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1월 24일 러시아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해왔으며 어떤 군사적 도발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1월 25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관계 당사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소식이 전해진 직후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북한의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한미 양국과의 긴밀한 연계,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에 대비한 국민의 안전 확보 등을 지시했다.

관계장관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며 한국 정부의 입장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AP

로이터

미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규탄하고 한국의 방위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운데)가 11월 23일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큰 사진).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용인하기 어려운 만행으로 북한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다(작은 사진).

을 지지한다"며 "북한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러시아 외교부도 11월 23일 '국가 간의 어떤 무력 사용도 강하게 비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우리의 입장은 모든 분쟁은 평화적이고 정치·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남북한 양측이 인내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한반도 내 군사적 대결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삼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대표는 "북한 당국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어떠한 추가 행위도 자제하고 정전협정을 충실히 존중하라"고 말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도 외무장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정당한 이유 없는 도발을 단호한 태도로 비난한다고 규탄했다.

영국·프랑스·독일 외무장관 성명 통해 北 도발 비난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북한의 공격은 위험한 도발행위로, 북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더 이상 적대적 행위를 하지 말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도 캐나다는 한국에 대한 확고한 지지국이라고 강조한 뒤 북한에 대해서는 무모한 행동을 더 이상 자행하지 말고 정전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한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에 반대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비난했다.

세계 주요 언론들도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월 24일 '북한 포격에 중국은 수수방관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 때도 비난을 보류하며 북한의 권력세습 지지, 경제원조 등으로 김정일 정권을 지원해왔다"며 "중국은 북한의 응석을 받아줘 화를 키운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도 사설을 통해 "예상대로 중국은 북한을 비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뒤에 숨으면 안 된다"며 "북한의 변화가 없는 한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는 성공하기 힘들며 중국만이 유일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또한 이번 사건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정치적 업적을 쌓기 위해 남한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도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된 지 두 달도 안 돼 이번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군에 김정은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G

글·이혜련 기자

1 '42억의 꿈을 싣고 출항'. 11월 12일 중국 광저우 주장 하이신사에서 펼쳐진 제16회 광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 광저우의 탄생을 알렸던 '물', 그리고 배와 형형색색의 빛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했다.

2 "아~ 감 좋았어. (박)태환이처럼 저도 3관왕이에요. 기억해주세요."
남자 사격에서 3관왕에 오른 한진섭이 11월 18일 아시안게임 남자 50미터 소총 3자세 개인전 금메달을 확정지은 뒤 '시크하게' 웃고 있다. 한진섭은 남자 50미터 복사 단체전과 3자세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해 3관왕에 올랐다.

3 "주인공 박태환, 행인 1·2 장린, 쑨양 영화제목 〈말 없는 만리장성에서 살인미소를〉"
중국의 수영 스타들이 협공을 펼쳤지만 당해낼 수 없었다. 완벽한 승리. 수영 남자 자유형 4백미터에서 우승한 '마린보이' 박태환(가운데)이 태극기를 몸에 두른 채 밝은 표정으로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자유형 2백미터에 이어 4백미터에서도 박태환에게 완패한 중국의 장린(왼쪽)과 쑨양이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4 "동메달도 값져. 니 미소만큼은 금메달이다. 괜찮아."
한국 여자 권총의 '미녀 에이스' 이호림(오른쪽)이 11월 16일 광저우 아오티사격장에서 열린 여자 25미터 권총에서 아깝게 동메달을 따내자 대표팀 선배인 진종오가 위로 겸 축하를 보내고 있다.

5 "만리장성을 넘었어요."
11월 25일 여자 1백미터 허들 경기에서 막판 10미터를 남기고 대역전 스퍼트를 펼쳐 아시안게임 여자 육상 단거리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낸 이연경이 감격에 겨워하고 있다.

金 수확 신기록… 종합 2위 달성

'각본 없는 드라마'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폐막

어느 대회보다도 유쾌한 마음으로 선수나 국민 모두 경기를 즐겼다. 선수는 자신의 실력을 믿었고, 국민은 그런 선수들을 굳게 믿고 무한 박수를 보냈다. 이런 분위기 덕분인지 이번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모든 종목에서 골고루 메달을 따냈다.

레슬링, 여자핸드볼, 남자배구, 남자축구 등 몇몇 종목에선 불운이 따르기도 했지만, 유쾌한 기분으로 대회에 나선 덕에 육상, 체조 등 아시아권에서도 부진을 겪던 종목에서 예상 밖 선전을 거두며 느긋하게 일본을 제치고 4회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대표팀은 양궁, 태권도, 유도 등 전통 효자 종목은 물론 기초, 구기 종목에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년 후 열릴 런던올림픽의 전망을 밝게 했다. 특히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지난해 부진했던 수영의 박태환, 교통사고로 재기가 불투명했던 역도의 장미란 등이 이번 대회에서 다시 힘차게 솟아오른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메이저리거 스타 추신수가 야구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것 역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유쾌한 도전이어서 더욱 흥미로웠던 '각본 없는 드라마'.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감동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다시 본다.

글 · 유재영 기자

연합

3

4

5

연합 연합

연합

1

2

3

연합

4

연합

1 "조금 있으면 웃을 거니까 함께 너무 감격해하지 마세요. 엉엉."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에 금메달을 안겨주며 일약 4차원 수영 '얼짱 스타'로 등극한 정다래. 11월 17일 아오티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여자 평형 2백미터에서 금메달을 따낸 뒤 시상식장에 입장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2 "도하의 아픔은 이제 잊겠습니다. 한국 야구는 엄연히 세계 최강이잖아요." 11월 19일 야구 결승전에서 대만을 가볍게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낸 야구 대표팀의 멋진 포즈 세리머니 역시 금메달감이다.

3 '남자 유도 새로운 별이 떴다.' 11월 15일 남자 유도 66킬로그램 이하급에서 깜짝 금메달을 따낸 김주진이 결승전 직후 두 손을 모으며 감격해하고 있다.

4 "한~~~~판." 한국 유도 간판스타 김재범이 11월 14일 광저우 화궁체육관에서 열린 유도 남자 81킬로그램 이하급 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쇼키르 무미노프를 화끈한 한판승으로 제압한 뒤 포효하고 있다.

5 "어떤 기분이니? 매운 맛 좀 느끼니?"
11월 19일 광저우 광둥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 63킬로그램급 결승에서 이대훈이 태국 선수에게 안면 발차기 공격을 하고 있다.

6 "누나, 초콜릿 CF 들어올 것 같은데.^^"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둑 혼성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낸 박정환(오른쪽)-이슬아. 이슬아가 시상식에서 애교 넘치는 표정으로 금메달을 깨물어보고 있다.

7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후배들아 고마워." 한국 축구 군계일학의 공격수로 아시안게임에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박주영. 아쉽게도 팀이 준결승에서 패하며 '빛'을 잃었다. 준결승 UAE전 종료 휘슬이 울린 뒤 박주영이 눈물을 흘리는 후배 선수들을 다독이고 있다.

8 "남자 체조에도 살인 미소가 떴네."
11월 16일 남자 체조 마루에서 중국의 장청룽과 공동 금메달을 따낸 김수면.

연합

연합

동아DB

연합

연합

1

동아DB

연합

4

연합

5

1 "따도 따도 너무 좋은 금메달이에요." 11월 21일 여자 양궁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누르고 금메달을 따낸 한국 여자 양궁 삼총사가 시상식에서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옥희, 주현정, 기보배.

2 "김연아 언니보다 예쁘죠? 연아 언니보고 연기에 용기를 얻었어요." 한국 리듬체조의 요정 손연재가 11월 26일 광저우 타운체육관에서 매혹적인 후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손연재는 개인종합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리듬체조 역사상 아시안게임 첫 개인 종목 메달이다.

3 "허허. 훈련을 덜했나 봐요. 이번엔 금메달로 만족합니다." 11월 20일 여자 역도 75킬로그램 이상급에서 용상 2차 시기에 금메달을 확정지은 장미란이 마지막 3차시기 용상 세계신기록에 도전하다 바벨을 놓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장미란은 이번 금메달로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을 제패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4 "혼신의 도약… 아파도 웃어요." 한국 멀리뛰기 간판스타 김덕현이 11월 24일 육상 남자 멀리뛰기 5차 시기에서 힘차게 도약한 후 근육 경련이 일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서 8미터11센티미터를 뛰어 금메달을 획득했다.

5 "태극기와 계속 달려볼까." 11월 16일 광저우 대학타운 벨로드롬에서 열린 사이클 4킬로미터 단체추발 결승에서 한국의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조호성(왼쪽)과 장선재가 태극기를 함께 들고 경기장을 돌며 환호하고 있다.

6 "카라보다 엉덩이춤을 더 잘 추는데. 헤이 거기 미스터. 어디 가." 11월 23일 펜싱 여자 플뢰레 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을 가볍게 제압하고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을 따낸 여자 대표팀이 서로 끌어안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

7 "넌 얼음, 난 간다~~." 11월 19일 광저우 광다체육관에서 펼쳐진 펜싱 남자 사브르 결승전에서 구본길이 중국의 중만을 꺾고 금메달을 확정한 뒤 환호하고 있다.

8 "누나, (이)용대보다 제가 낫죠." "그래 바꾸니까 좋다. ㅎㅎ." 2008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이용대와 짝을 이뤄 금메달을 따낸 이효정(오른쪽)이 이번엔 신백철로 짝을 바꿔 금메달을 차지했다.

연합

GS칼텍스는 사회공헌의 한 축으로 녹색나눔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미래를 이끌 어린이들의 환경교육 차원에서 지난 5월 열린 GS칼텍스 녹색환경미술대회 모습.

소외계층에 '희망'이란 선물 한아름

그린 경영·교육활동 후원 등 환경과 기회 제공에 앞장

나눔은 곧 미래다. 미래는 희망으로 연결된다. 다음 세대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나눔의 핵심 목표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들은 희망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기부·교육·환경보전 등 녹색나눔 실천

그린 에듀테인먼트(Green Edutainment), 그린 도네이션(Green Donation), 그린 리사이클링(Green Recycling)'. GS칼텍스의 사회공헌 키워드는 '그린'이다.

GS칼텍스는 2005년 2월 사회공헌 전담 부서를, 2006년 8월에는 GS칼텍스재단을 각각 설립했다. GS칼텍스재단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매년 1백억원씩 출연해 1천억원 규모의 공익사업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김명환 부사장은 "재단을 통해 문화 인프라 구축 등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인재 육성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를 총괄하는 슬로건은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 이다.

GS칼텍스 사회공헌활동의 한 축인 녹색나눔 프로젝트는 청소년 교육, 기부활동, 자원 재순환활동으로 이뤄진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환경교육에 집중한다.

어린이 환경교육과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한 '그린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대표적이다. GS칼텍스는 1994년부터 매년 5월 전남 여수·순천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GS칼텍스 녹색어린이 글쓰기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엔 광양지역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어린이 사회자가 직접 개회식을 진행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과 재생연필을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의 장을 열고 있다. 환경성 질환 아동과 환경 난민을 돕는 '그린 도네이션' 활동도 활발하다.

GS칼텍스는 GS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공익을 목적으로 아예 별도의 상품을 만들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환경성 질환 아동 돕기에 기부하고 있다. 기획 단계부터 제작, 유통, 수익금 활용까지 오직 '나눔'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매년 100억원씩 출연 1000억원 공익사업 전개

자원 재순환과 환경보전을 추구하는 '그린 리사이클링' 사업도 활발하다. GS칼텍스는 국립공원 지역인 여수 오동도를 비롯해 여수 섬 지역 해안가 정화와 방역활동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1997년부터는 매월 여수공장 부둣가에 있는 광양만 환경보전을 위해 해상 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인다. 인천에서도 정기적으로 월미도 쓰레기 줍기 및 해안가 정화활동을 진행한다.

회사 임직원들과 가족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나눔 체험'도 GS칼텍스 사회공헌의 큰 축이다.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한 소원 성취 릴레이 봉사활동이 대표적이다. 2005년 처음 시작해 5회째를 맞는 이 봉사활동은 지난해까지 5년간 81개 봉사 프로그램에 약 3천4백90명의 임직원 및 봉사자들이 참가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일주일간 4백여 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여수 등 전국 7개 도시에 거주하는 소외된 이웃을 찾았다. 소외 이웃들이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등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서다.

2005년부터는 임직원이 낸 후원금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후원해 개인이 지정하는 복지단체를 지원하는 GS칼텍스 한마음기금 제도(매칭그랜트 방식)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2005년부터 총 30여 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여러 단체에 지원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공헌활동도 중요하지만 직원들과 가족들이 실제로 함께할 수 있는 나눔경영에 주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글 · 김현진(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동아DB

아시아나항공이 1994년부터 유니세프와 진행한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 운동' 모금액이 5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7월 기념행사에서 아시아나항공 윤영두 사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유니세프 친선대사인 영화배우 안성기 씨 등이 아프리카 우물을 상징하는 모금함에 동전을 채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사랑의 동전' 세계 곳곳에 희망 배달

지난 8월 19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일대에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작업이 진행됐다. 이 가로등은 유적 보호 및 관광객 안전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앙코르와트 주변에 설치한 것이다. 올해 16개의 태양광 가로등을 앙코르와트 주변에 설치했으며 2015년까지 매년 가로등 5~10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월 KOICA와 해외 사회공헌활동을 공동으로 펼친다는 내용의 업무 협조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회사답게 해외에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1994년부터 기내에서 진행해온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국내에서 사장되기 쉬운 외국 동전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세계의 어린이들을 돕자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다.

지난 7월 21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3층에서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과 박동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안성기 유니세프 친선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내 모금액 50억원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해에는 연간 최고

동아DB

효성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희망 키우기' 일환으로 음악을 통한 글로벌 메세나 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효성의 후원으로 세계적 첼리스트 요요마와 부산의 집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만남을 가졌다.

액인 7억4천만원을 모금했다. 이 모금액은 고통 받는 어린이 지원은 물론 아프리카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우물 지원사업에도 쓰였다.

아시아나항공 필리핀 클락 영업소 직원들이 만든 봉사단체인 '클락 수호천사'는 KOICA 등과 함께 필리핀 아이따족에게 태양광 전등을 기증하는 '희망의 빛'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이따족은 1991년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생활 터전을 잃었다. 이 때문에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데다 잦은 기근으로 상당수 마을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등 국제적인 도움이 절실했다. 태양광 전등 보급은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다.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태양광 가로등·전등 설치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도 소외계층·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9월 1일에는 서울 양천구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 7개국 언어로 출판된 도서 1천2백39권을 센터 도서관에 기증했다. 모두 아시아나항공 해외지점에서 직접 구매해 항공편을 통해 실어온 것이다.

윤영두 사장은 "이번 도서 기증은 임직원들이 직접 모은 물품을 올해 5월 자선 장터에서 팔아 마련한 금액으로 지원한 것이라 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글 · 김승범(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HYOSUNG

1600여 명 대상 희망나눔학교 비용 전액 후원

효성의 사회공헌사업 키워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희망 키우기'다. '희망나눔학교'가 대표적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교육·문화활동을 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방학 동안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 것이다.

효성은 올해 여름방학 동안 굿네이버스와 함께 1천6백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나눔학교 행사 비용 전액을 후원했다. 또 효성 임직원들이 희망나눔학교 아이들을 초대해 물놀이를 즐기는 '원더풀(Wonder-Pool)' 행사에 직접 참여했다.

효성은 매월 1회 30여 명의 임직원이 삼동소년촌을 찾아 급식 등을 지원하는 일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효성중공업PG 임직원들은 장애인 전문학교인 정문학교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 학생들이 놀이동산, 한옥마을, 전망대, 수족관들을 관람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경영과 사회공헌활동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축구 관련 사회공헌 사업이 가장 활발하다. 2008년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계 올스타 자선축구경기대회 '테이크 액션 풋볼 매치(Take Action Football Match)'에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공식 후원에 참여했다.

매월 1회 임직원들 삼동소년촌 방문해 일일 봉사활동

지난 6월에는 영화 〈맨발의 꿈〉 시사회에서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단에 지원금을 전달했고, 2008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 때 홍명보 자선 축구대회를 후원해오고 있다. 음악을 통한 글로벌 메세나 활동도 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와 오케스트라 실크로드 앙상블 공연을 후원했다.

효성 관계자는 "공연에는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촉망 받는 차세대 음악가인 부산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초청했다"며 "소외된 계층의 문화생활 확대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글 · 김현진(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SAMSUNG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랑의 집짓기·쌀 전하기 등 사회공헌 실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부르즈 칼리파)과 한국에서 가장 긴 다리(인천대교)를 지을 정도로 뛰어난 시공능력을 갖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 장점을 살려 '사랑의 집짓기-해비타트' 사회공헌활동을 11년째 진행하고 있다.

2000년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전남 광양시에서 32가구를 건립한 것을 시작으로 경북 경산시와 강원 강릉시, 충남 아산·천안시 등에서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총 2백31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

사랑의 집짓기 행사엔 회사 임직원만 참여하지 않는다. 임직원의 가족은 물론 삼성물산이 지은 '래미안' 아파트의 입주자, 대외협력기관 임직원도 동참한다. 이를 위해 '주말 가족 참여 해비타트', '번개 해비타트', 신입사원들이 참여하는 'OJT 해비타트', '래미안 고객 해비타트' 등의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광양·강릉 등에 10년 동안 총 231가구 보금자리 마련

2003년부터는 미국과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로도 활동 무대를 넓혀 매년 10여 명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을 한다. 지난해엔 신종플루 때문에 중단했지만 올해는 4분기에 인도에서 재개하고 있다.

해비타트사업 외에도 농촌 등 저소득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도 늘려가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9월 15일 쌀 8백 포대를 사들여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했다. 9월 3일부터 13일까지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쌀 전하기' 캠페인에서 성금을 모아 1천 포대가량의 쌀을 산 뒤 전북 군산시, 충북 괴산읍 등 전국 11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박창언 인력개발실 상무는 "기업이 1백 년을 지속하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설업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G

글 · 전재호(조선경제i 기자)

정상의 시공능력을 자랑하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사의 장점을 살려 '사랑의 집짓기-해비타트' 사회공헌활동을 11년째 진행해오고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은 대한민국 발전의 숨은 주인공인 우리 국민 모두를 주제로 자랑스러운 역사의 순간들을 기록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담아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근현대사 찬란한 기록 현장 터 닦았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착공식… 2012년 5월 완공

서울 광화문에 자리한 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자리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세워진다. 단순히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시설이 아니라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방대한 자료를 담아내는 아카이브 기능과 전시, 교육, 공연 프로그램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며 앞으로 광화문 일대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담아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11월 25일 첫 삽을 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08년 제6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역사박물관을 지을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2년여의 짧지 않은 기간 속에서 박물관의 의의, 전시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 건립 계획 등에 관한 논의 과정을 거쳐 설계가 완성됐다.

이날 착공식은 약 2년간에 걸쳐 진행될 박물관 건립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지금까지 건립위원회가 고민해온 박물관의 의미와 앞으로의 위상에 대해 발표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김동건, 황수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공식행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주요 인사, 독립·정부수립 유공자와 참전·민주화 관련 인사, 파독 광부·간호사, 경부고속도로 건설 관계자, 1960~70년대 구로공단 근로자, 해외파병 군인, 청소년단체 대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 4백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치·교육·과학기술 등 기록과 역사 전시하게 될 것"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에서 "단순히 또 하나의 전시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교육, 과학기술 등 모든 기록과 역사를 종합적으로 전시하는 곳이 될 것"이라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품격에 맞는 박물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건축비 절감과 친환경 공사라는 실용성에 건물이 갖고 있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계승해간다는 철학을 구현하고 있다. 국립무용단원 이현주 씨가 역사박물관의 무사 건립을 기원하는 '기원무'를 추고 있다(오른쪽).

김황식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성공의 역사다. 이곳은 우리의 도전과 성취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어 역사인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생생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신달자 시인의 축시 낭송과 국립합창단과 일반 국민이 하나가 되어 부르는 합창 공연, 역사박물관의 무사 건립을 기원하는 국립무용단의 '기원무' 등 축하 행사들이 착공식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의 끝은 착공을 알리는 전통적인 터다지기가 장식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24명의 참석자가 힘을 모아 돌을 들어올리며 착공식을 기념한 터다지기 의식은 앞으로 세워질 역사박물관이 국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평생 모은 기록물 3백3점을 아낌없이 기증해 역사박물관에 가장 많은 기록물을 기증한 기록을 세운 이무상(73) 씨도 터다지기에 동참해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착공식이 끝난 뒤에는 '역사의 나무'에 희망 메시지 달기 이벤트, 행사 참석자들과 광화문 일대 시민들이 함께 잔치 음식을 나누어 먹는 '만남과 교류' 행사도 펼쳐졌다.

이에 앞서 김진현(74)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지는 만큼 어느 한 분야도 전시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흔적을 보여주겠다"고 건립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건립 계획에 맞게 완성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발전사와 관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 자료를 총망라하는 전시공간이 될 전망이다.

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별관부지 일부를 증축해 세워질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부지면적 6천4백46제곱미터, 총 건축연면적 9천5백 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4백84억원을 투입해 건립된다. 완공은 2012년 5월 예정으로, 2013년 2월 개관이 목표다. 상설전시실과 강의실, 세미나실 등 전시·교육공간, 뮤지엄숍,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역사성·감동 극대화 위해 IT·CT 등 특수 전시기법 활용

증축을 최소화하고 폐자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 설계와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개방적인 구조는 앞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광화문 지역의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안겨준다.

박물관의 구성은 ▲대한민국 태동(개항기~8·15 광복) ▲대한민국 기초 확립(정부수립~4·19 혁명)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5·16 군사정변~1980년대 민주주의 확산) ▲대한민국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민주화시대 개막~대한민국의 미래)이라는 4개의 대주제를 기반으로 꾸며진다.

전시관 내부는 전시품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성과 감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 정보기술(IT), 문화기술(CT), 음향, 조명 등 특수 전시기법을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를 감성적으로 체험할 있도록 구성된다.

특히 자료를 디지털화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재외 문화원이나 각급 학교 등에서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시 관람과 역사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G

글·이윤진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DNA분석실

DNA로 숨은 범인 찾아낸다

살인, 방화,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 해결의 열쇠는 DNA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갈수록 광역기동화하는 강력범죄의 실마리를 푸는 유일무이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자연히 DNA 관련 수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조율하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내 과학수사계 DNA 분석실. 아침부터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하는 윤태일(39) 경장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많이 올라왔네…."

모니터 화면을 보며 부지런히 정보 분류작업을 하던 윤 경장이 나지막이 한마디 내뱉는다. 화면엔 전국 일선 경찰서가 검거해 구속된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이름이 즐비하다.

윤 경장이 접속한 프로그램은 경찰청 'DNA 신원확인정보 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엔 전국 경찰서에서 처리된 강력사건의 종류와 일시, 해당 사건 구속 피의자의 신원과 DNA 채취 상황 등이 실시간 등록된다. 그가 하루에 확인하는 사건 피의자만 해도 40~50명. 엄밀히 말하면 이는 전국 경찰서가 해당 사건 피의자의 DNA를 채취해 등록한 건수다.

윤 경장을 포함한 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DNA분석실은 지난 7월 1일 신설됐다. 7월 26일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의 시행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일선 경찰서 간의 DNA 감식 및 신원확인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DNA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됐다.

DNA분석실의 핵심 업무는 '강력 범죄자 DB 구축'

DNA법은 살인, 강간·추행, 아동·청소년 성폭력, 강도, 방화, 약취·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 형법상 상관 살해 등 주요 11개 혐의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

"미제사건 해결은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DNA분석실 직원들이 DNA 신원확인정보 시스템 화면 아래에서 각오를 다졌다.
왼쪽부터 김희준 주무관, 윤신규 DNA분석실장, 윤태일 경장, 양채공 경위.

의자의 DNA를 채취해 영구 보관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과거 미제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나 정액 등의 증거와 DNA 대조를 통해 '숨은 범인'을 찾아내는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을 비롯해 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등 초대형 강력범죄자들의 DNA 정보도 영구 보존돼 추가 범행이 드러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정 강력범죄자들의 DNA DB 구축'을 DNA분석실의 핵심 업무라고 밝힌 윤신규 DNA분석실장도 DNA법 시행에 따른 미제사건 해결효과를 톡톡히 실감하고 있다.

"11월 18일까지 경찰이 2천5백여 명의 DNA를 채취했는데 이를 통해 3백70건(2백51명)의 미제사건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DNA법이 시행되면서 특정 강력범죄자들의 DNA를 채취해 이를 DB로 구축할 수 있게 됐고, DB 구축 과정에선 과거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 자료와 대조해 상당수의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DNA 신원정보 활용으로 지금은 여죄가 드러나는 단계지만 향후 수년 내에 수만 건의 특정 강력범죄자의 DNA 신원확인정보에 대한 DB가 구축되면 강력범죄 현장에서 바로 용의자를 추려내는 일도 가능해질 겁니다."

윤 실장은 DB 구축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력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당 전과자들은 자신의 DNA가 영구 보존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죠. 범죄 억제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DB 구축으로 수사 효율성 및 범죄 예방 기여"

DNA분석실의 업무는 대부분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뤄지지만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이 몰려들고 있다. DNA법 시행 이후 일선 경찰서에서 주요 11개 혐의 범죄 피의자에 대한 DNA 채취 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DNA분석실은 DNA 채취와 감식 및 신원확인 단계에서 일선 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간에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는 해당 피의자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다. 감식이 끝나면 경찰서로 결과가 통보돼 피의자가 확실히 범행에 연루됐는지 여부가 밝혀진다.

이 과정을 통해 피의자의 DNA 정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센터에 보존, 축적되는데 여기서 DNA분석실이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선 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취한 DNA 시료를 분석 의뢰하면 DNA분석실은 해당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분리하고 DNA 시료 식별코드(예 201009******)만 부여해 감식을 의뢰하는 것이다.

"오늘도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DNA가 많이 채취됐군." 윤신규 DNA 분석실장과 윤태일 경장이 경찰청 DNA 신원확인정보 시스템에 새로 등록된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DNA 채취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DNA법엔 DNA 신원확인정보 관리와 이용에 있어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룰'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DNA분석실이 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식별코드만 붙여 감식 의뢰된 DNA 시료를 DNA 분석이 끝나면 숫자 및 문자 부호로 변환해 보관한다.

윤 실장은 "DNA 신원확인정보 DB가 일선 수사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며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곳이 DNA 분석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DNA 신원확인정보 DB제도에 강한 신뢰감을 보였다.

"약 5백만명 이상의 DNA 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이나 6백70만명 이상의 DB를 갖춘 미국의 예를 보면 흉악범죄 대처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인터폴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미제사건 31만3천9백72건의 34퍼센트인 10만6천9백2건을 DNA 신원확인을 통해 해결했다.

DNA분석실에 있으면서 주변 청소를 자주 하는 '좋은' 습관이 생겼다는 윤 실장, 그리고 그의 이 농담을 부인하지 않는 분석실 직원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과학수사 인프라의 키를 쥔 때문일까. 그들의 활약에 기대가 크다. G

글 · 유재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사다리' 세운다

대학생 과외 봉사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났을까.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심심치 않게 발표되고 있는 요즘, '교육 사다리'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이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 과외를 해주는 대학생 봉사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의 한 낡은 건물에 자리한 작은 강의실에서는 20~30명의 학생들이 앳된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하 '배나사')이 교육봉사를 하고 있는 용산 교육장이다. 선생님은 '배나사'에서 교육 봉사를 하는 대학생 봉사자이고,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얼마 전까지 과외 수업은 꿈꾸기 어려웠던 저소득층 중학교 2학년생들이다. 교재는 봉사자들이 만든 자체 교재로 '공신(공부의 신)'들의 노하우가 담겨 그 어느 교재보다도 내용이 알차다.

'배나사'는 2007년 5월 서울과학고 동문들이 모여 시작한 단체다. 이준석(25) '배나사' 대표는 미국 하버드대 졸업을 앞두고 모교인 서울과학고 동문 홈페이지에 '그동안 우리가 배운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자'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20여 명이 관심을 보였고 이것이 '배나사'의 시작이 됐다.

먼저 용산에 교육장을 마련하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모아 봉사자들의 전공을 살려 수학과 과학을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특별히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중학교 3학년만 돼도 자신의 진로를 포기해버리는 학생들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또 이전까지 공부 습관을 들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도 중학교 2학년 시기를 잘 보내면 충분히 학업성적을 올리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희망에서였다.

마포·금천·구로 등 총 6개 교육장 280여 명 교육봉사

희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2008년 처음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평균 13점이 올랐다. 학교에서 40~50점대의 수학 점수를 받아오던 일부 학생은 교육을 받은 지 1년이 되지 않아 80~90점을 받아오기도 했다.

이들의 사연이 전해지자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희망자가 늘었고 봉사 참가자, 지방자치단체의 손길이 보태지면서 '배나사'의 활동 범위도 넓어졌다. 지금은 용산 외에도 마포, 금천, 구로구와 경기 고양시, 대전 유성구까지 총 6개 교육장에서 2백80여 명이 교육봉사를 하고 있다.

교육을 받는 2백여 명의 학생들은 지자체 또는 일선 학교와 협력해 대상 학생을 추천받거나 학생들의 자기 추천을 받아 모집한다. 모집 학생 중 추천서 또는 지원서를 토대로 학생의 학업능력, 지적 수준, 가정 형편, 가족 구성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 등을 판단해 최종 선발한다.

처음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중학교 1학년 2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로 대상 학생 폭을 넓혔고, 올해부터는 영어 수업도 시범적으로 진행했다.

김이루(23·연세대 생명공학과 대학원 재학) 배나사 홍보팀장은 "교육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영어는 안 하느냐'는 문의가

2백80여 명의 대학생이 저소득층 중학생들에게 무료로 수학, 과학, 영어를 가르쳐주는 과외 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배나사' 용산 교육장 수업 장면.

조영철 기자

'배나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대우증권의 후원을 받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음악회나 연극공연을 관람하기도 한다.

많았다"며 "초기 멤버들에 이과 전공이 많아 수학, 과학만 가르쳤지만 인문계 전공 선생님들도 참여하면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게 체계가 잡혀 용산, 마포, 금천 교육장에서 영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봉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수학과 과학 중 한 과목을 맡아 가르친다. 또 교육봉사 외에도 교재 개발이나 예산기획, 홍보 등 '배나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학점 관리나 취업 준비에 바쁜 요즘 대학생들에게 이런 봉사활동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봉사자들의 열정은 대단하다.

"학생들이 공부에 욕심내는 모습 볼 때 보람 느껴"

마포 교육장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김동권(23·서울대 전기공학부) 씨는 방위산업체에서 군복무를 하기 위해 휴학을 했다. 퇴근하면 몸이 지칠 법도 하지만 관리자로서 수업이 없는 날에도 교육장에 나온다. 교재 개발을 하려면 종종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한다.

김 씨는 "바쁘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학생들이 변하는 모습을 볼 때 힘이 난다"며 "처음에는 묻는 말에 대답도 잘 안 하고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오는 것 같았던 학생들이 점점 흥미를 느끼고 마음을 열고 고민을 털어놓을 때면 보람을 느낀다" 고 말했다.

물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변화가 없는 학생들도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김 씨는 '어쩌면 내가 1백 퍼센트의 노력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르치는 데 더 힘을 쏟는다고 한다.

중고교 때부터 홀트복지관 등에서 활동하며 봉사에 관심이 많았다는 정겨운(20·이화여대 경영학과) 씨는 대학 학보에 난 '배나사'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현재 고양 교육장에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전공을 살려 기획예산팀 활동도 한다.

그는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을 보면 보람을 느끼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더라도 공부에 욕심을 내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등 학생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 때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다.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 정 씨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덜었지만 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이다 보니 기본적인 필기구조차 못 챙겨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글·정고은 객원기자

상(賞)에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다.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받는 사람에게는 그 의미가 다를 것이다.

11월 22일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은 그런 점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는 희망과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중문화예술상을 제정했고, 또 매년 11월 넷째 주 월요일을 대중문화예술인의 날로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날 보관문화훈장을 받은 배우 신구(75) 씨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문화관에서 만났다. 그는 현재 극단 화동연우회가 무대에 올릴 연극 〈페리클래스〉를 준비 중이다.

신 씨는 "다른 재주가 없어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한길을 보고 왔는데 내가 이 상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좋은 선배와 동료들이 많은데 상을 받아 쑥스럽고 미안하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화동연우회는 1991년 경기고 연극단 졸업생들이 모여 창립했으며 첫 작품으로 〈이런 동창들〉을 올리면서 매년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이 스무 번째 작품이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날'은 문화예술 종사자에게 자극제"

신 씨는 "그동안 영화, 연극, 방송 분야에서 많은 상을 받았지만 이번 상은 각별하다"며 "내 젊은 시절과 달리 후배들은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이런 상과 대중문화예술인의 날을 정한 것은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들

"한길만 보고 왔는데…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국민배우 신구, 대중문화예술상 보관문화훈장 수상

에게 자극제가 된 것 같아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부 포상에는 훈격(勳格·서훈의 등급)이 있다. 그동안 문화예술인들에게 주어진 정부 포상의 훈격은 옥관(4등급)과 화관(5등급)인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대중문화예술상 신설을 계기로 보관(3등급)으로 한 단계 높아졌다.

그는 극중에서 주로 서민적인 아버지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시트콤에서 이른바 '망가지면서' 젊은이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특히 2002년 한 TV광고에 출연해 던진 "너희가 게 맛을 알아?"라는 유행어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연극, 드라마, 영화 등 영역을 넘나들고 있지만 그는 1962년 연극 〈소〉로 데뷔했으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72년 드라마 〈허생전〉을 시작으로 방송에 발을 들여놓았다. 반백 년을 배우로서 관객과 호흡해온 것이다. 최근에는 연극인 손숙 씨와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에서 귀부인과 흑인 운전기사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그에게 연기생활에서 전기가 되거나 가슴 절절했던 작품을 꼽아달라고 물었다. 그가 꼽은 작품은 번역극인 〈LUV〉(연출 오태석)와 1970년대 방영됐던 TV드라마 〈야간비행〉.

〈LUV〉는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한 부부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 친구와 재혼했으나 곧 후회하며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음모를 꾸민다는 내용이다. 〈야간비행〉은 북에서 남파된 간첩에 관한 드라마로 여기서 그는 남파간첩 '탁구' 역을 맡았다. 그에게 주어진 배역은 미미했으나 연극에서 다져진 그의 탄탄한 연기력이 돋보여 극중에서 비중 있는 인물로 설정이 바뀌었다고 한다. 〈야간비행〉은 그런 의미에서 그의 얼굴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된 작품인 셈이다.

"언제든지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유지하려 노력"

인터뷰 내내 모자를 쓰고 있던 그에게 모자에 대해 물었다. 신 씨는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에서 흑인 운전기사 역할을 맡으면서 배역에 맞춰 흑인 파마를 해 모양이 잡힐 때까지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닌다"며 살짝 모자를 벗어 머리 모양을 보여줬다. 작품에 충실한 그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일흔을 훌쩍 넘긴 그가 나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지 않아 못할 수도 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지만 일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오면 항상 'OK'라고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매일 빨리 걷기와 집에서 옷이 흠뻑 젖도록 페달 밟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데 말이야, 지금도 내가 매일 집에서 소주 한 병은 마시거든. 그래야 잠도 잘 오고. 집사람은 나한테 술 마시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 같다고 해"라며 신 씨는 활짝 웃었다.

이어 그는 "밥이 된 후 뜸을 들이기 위해 기다리듯 세상일에는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남들과 속도를 맞추려고 달려가다 낙오되거나, 조급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안타깝다"며 후배들이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인터뷰 후 바라본 신 씨의 뒷모습에서는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꼿꼿함과 오랜 세월을 견뎌온 묵직함이 묻어났다. G

글 · 강선임 객원기자

조영철 기자

매년 11월 넷째 주 월요일 '대중문화예술인의 날'

"대중문화예술인 사랑·마음 담아 신설"

연합

11월 22일 대중문화예술인의 날을 맞아 열린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가수 이선희, 배우 김해숙·정해선, 고 민영문 PD 유족, 희극인 남성남, 연주가 김춘광, 성우 배한성(왼쪽부터) 씨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사기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매년 11월 넷째 주 월요일을 '대중문화예술인의 날'로 정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대중문화예술인의 날인 11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첫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배우 신구, 성우 고은정, 희극인 임희춘 씨가 보관문화훈장(3등급)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32명의 대중문화예술인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렵던 시절 우리는 한 편의 드라마, 한 곡의 노래, 한마디의 코미디 속에서 삶의 애환과 희망을 찾았다"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신설했다"고 상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그동안 외형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산업 내부의 질적 성장과 사회적 위상은 취약한 실정"이라며 "대중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적 명예 제고 ▲권익보호 지원 ▲창작 및 유통 활성화 ▲체계적인 대중문화예술 진흥정책 지원기반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대중문화예술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계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못 쓰게 된 폐현수막들이다. 그 옆으로는 깨끗하게 세탁된 각종 묵은 옷들이 한가득 걸려 있다. 누군가에게는 처치 곤란한 '쓰레기'들이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 곧 새 생명을 얻는다. 폐현수막은 헌 벨트와 만나 멋진 빅백이 되고, 낡은 소파 가죽은 근사한 반지갑으로 변신한다. '그린매직'이 이뤄지는 곳, 바로 리블랭크의 사무실이다.

리블랭크는 2006년 '아름다운 가게'에서 재활용 제품 브랜드 사업인 '에코파티 메아리'를 담당했던 디자이너 3명이 모여 2008년 3월 탄생한 에코 브랜드다. 지금은 경영에 관여하느라 디자인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는 채수경(37) 리블랭크 대표 역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 출신이다.

채 대표는 프랑스의 유명 패션 브랜드인 까르띠에가 올해 10월에 발표한 여성 창업인 15인에 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단순 재활용품 넘어선 '업 사이클' 제품

그가 운영하는 리블랭크의 사업 모델은 '아름다운 가게'에서 기부받은 헌 옷과 소파 천, 한 패션업체에서 지원받은 자투리 천 등을 이용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옷과 패션 소품들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다.

리블랭크는 문을 연 지 2년이 채 안 됐지만 온·오프라인 쇼핑몰 10곳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해 있다. 특히 구매력이 있고 독특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20, 30대 여성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폐지를 모아 재생지를 만들고 빈병을 모아 다시 병을 만들고, 헌 옷을 유행에 맞게 살짝 변형해서 개조한다면 이는 1차원적인 재활용이다. 하지만 리블랭크 제품들은 재활용품이라기보다 한 차원 높은 '업 사이클(Up-cycle)'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 리블랭크의 제품을 그냥 중고 제품으로 생각하시

친환경에 재활용 아이디어 박음질

세계 여성 창업인 15인에 선정된 채수경 리블랭크 대표

제품의 예술성, 사회적 가치, 회사의 이윤.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최고경영자(CEO)에게는 지나친 욕심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이 어려운 숙제에 도전하는 젊은 여성 CEO가 있다. 프랑스의 유명 브랜드 까르띠에가 주최한 '여성 창업 어워드' 최종 15인에 선정된 채수경 리블랭크 대표다.

는 분들은 가격이 비싸다고 하세요. 하지만 헌 옷은 소재일 뿐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디자이너 고유의 창의력과 소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색상과 디자인의 옷과 가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활용품에 가치를 더한 제품이라고 해서 '업 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리블랭크에는 묵은 옷을 가지고 와서 수선(리폼)해달라는 고객들의 문의도 많다. 하지만 수선은 사절하는 게 리블랭크의 원칙. 디자이너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줄고 그만큼 새롭다고 할 만한 제품이 탄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헌 옷을 기증하는 고객들에게는 가방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업 사이클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시 프로젝트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리블랭크로서는 중요한 업무다.

이런 생산활동을 통해 채 대표는 제품에 두 가지 가치를 더할 수 있게 됐다. 하나는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쓰레기를 줄여 '친환경'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가치, 또 하나는 디자이너의 창작물로 예술적 가치를 얻게 됐다.

까르띠에는 2006년부터 대륙별로 전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여성 창업인을 발굴하고 있다. 선정 작업 때는 사업의 수익성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 아이디어와 사회적 의미 등을 두루 검토하는 게 특징이다. 실제로 선발자 중 탄자니아 출신 여성 CEO의 아이디어는 아직 사업화하지 않고 기획 단계였지만 사회적 의미를 높이 평가받아 최종 15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은 리블랭크의 사업에 대해 '사업 아이템, 디자인 수준, 물성을 파악하는 능력, 제품화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브랜드 로고와 이름 역시 창의적이다'라는 호평을 내렸다.

최종 15인 중 대륙별로 1등을 가려 전 세계 최종 5인도 선정했는데 아쉽게 리블랭크가 여기에 들지 못한 것은 단 하나,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단점 때문이었다.

"대량 주문 가능한 제품라인 강화하는 게 목표"

"사업이라는 게 지속성을 가지려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처럼 1백 퍼센트 수작업으로는 무리예요. 저희도 창업 때부터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재 고가의 단 하나뿐인 의상도 판매 중이지만 좀 더 저렴하고 대량 주문이 가능한 소품들도 판매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런 제품라인을 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생산력을 키운 다음의 꿈은 직영 매장 개점이다. 빠르면 내년 말쯤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 다음 목표는 세계시장 진출이다. 업 사이클링 시장이 먼저 형성돼 붐을 이루고 있는 독일, 스웨덴 등 유럽에서 한국산 업 사이클링 제품이 당당하게 판매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게 그의 소망이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개인과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많은 호텔들이 시설 등을 새롭게 꾸민 걸로 알고 있어요. 호텔에서 버려지는 소파, 커튼, 카펫 등은 리블랭크 제품의 귀중한 소재가 돼요. 정기적으로 새 단장을 하는 항공사나 호텔 등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저희에게 기부해주시면 더 다양하고 독특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선보일 자신이 있답니다." G

글 · 정고은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채수경 대표는 재활용품에 가치를 더한 '업 사이클' 제품으로 당당하게 세계 여성 창업인 최종 15인에 선정됐다. 헌 옷을 유행에 맞게 살짝 변형해 만든 원피스들.

'영화 낭인' 된 재일 한국인 영화제작자 이봉우

"韓·日 제작진 모아 영화 만들고 싶다"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영화제작사 시네콰논의 전 대표로 숱한 화제작을 낳은 이봉우 씨. 메이저 영화사와 방송사가 장악한 일본 영화계에서 인디펜던트(독립) 영화제작자로서 당당하게 한자리를 차지했던 그는 지금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을까. 극장도, 제작사 경영도 내놓고 '영화 낭인'이 된 그가 밝히는 비전에 대해 들었다.

탄광촌 댄스팀 이야기를 그린 영화 〈훌라걸스〉(왼쪽). 믿을 수 없는 기억과 믿음에 대한 단상을 던져준 영화 〈유레루〉.

이봉우(50)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잘나가는 극장 체인이자 영화제작사인 시네콰논의 대표로 일본 영화계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제작자 중 한 명이었다. 칸 영화제 최초로 아역배우가 남우주연상을 받은 〈아무도 모른다〉를 비롯해 탄광촌 댄스팀 이야기인 〈훌라걸스〉, 1960년대 조선인학교 재학생의 슬픈 청춘담 〈박치기〉 등 그가 제작한 영화는 일본 평단의 열광을 얻어냈다.

또한 1993년 한국을 찾아와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를 파격적 가격인 25만 달러에 구입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영화를 일본에 본격적으로 알리면서 영화 한류(韓流)의 막을 열었다. 또 〈쉬리〉나 〈공동경비구역 JSA〉를 당시 최고가인 1백만 달러에 일본으로 수입해 '대박'을 쳤다. 이런 공로로 2003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공로상을 받았다.

흔한 성공담에 지쳤을까. 그는 올해 초 일본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약 8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지난 9월 22일 민사재생법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부채 규모는 47억엔.

2006년 서울 명동에 연 극장 사업이 잘못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극장을 임차한 사람이 건물을 경매에 넘기는 바람에 4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극장이 날아갔습니다."

이 씨가 한국영화 수입을 시작한 것은 1993년. 이후 10여년간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름대로 한국 물정을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의 생각과 다른 점이 너무 많았다.

〈쉬리〉〈JSA〉 구입으로 일본 영화계에 한류 막 열어

"명동의 극장을 소개한 사람이 영화관련 기관장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정도의 위치라면 믿을 수 있는데…. 건물주가 제게 건넸던 2, 3년간의 극장 매출 수치도 거짓이었습니다. 40억원은 버렸다 생각하면 그만이었지만, 문제는 일본이었죠. 일본 쪽에서는 내가 한국에다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닐까 의심했고, 그러면서 추가대출이 되지 않아 돈줄이 막혔습니다."

일본 사회에서의 숱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자이니치

KOR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재일 한국인)로 살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오던 그였지만 막상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한국에서의 사업은 없는 걸까. 다행히 실패도 한국을 향한 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다.

"한국 아니라 미국에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실수의 원인은 한국에 대한 일그러진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으면 절대 그런 식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이 싫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믿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네콰논에서 물러난 그의 최근 관심사는 이동영화관에 있다.

"10년 전쯤 이동영화관(Cinemobile)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프랑스 파리에서 1백70킬로미터 떨어진 도시인 오를레앙으로 갔습니다. 16톤짜리 커다란 트레일러 안에 객석 1백개와 스크린이 들어 있는데 일주일 정도 이 영화관이 머무는 동안 마을에서는 온통 축제가 벌어집니다. 영화 보고, 와인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일단 페스타(Festa)란 이름의 회사를 차려 이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차 한 대 가격이 1억엔 정도인데, 화장품 회사에서 자동차 외부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제작비 일부를 충당키로 했습니다."

학생 단체관람 부활 등 옛날 관람문화 시도해보고 싶어

이 씨는 이 밖에도 멀티플렉스가 대세인 한국, 일본에서 없어진 학생 단체관람도 부활하고, 노인들만 사는 마을도 찾아 영화축제를 여는 등 옛날 방식의 관람문화를 시도해보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영화 제작에 관한 욕심도 아직은 버릴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의 영화 스태프를 모아 만드는 새로운 영화다.

"두 나라의 영화 인력을 '결합'해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두 나라 아닙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절망에 빠질 만한 상황에서도 영화에 관한 새로운 발상들이 쏟아져나오는 원동력은 역시 영화에 대한 그의 사랑에, 그리고 그의 영화를 기다리는 수많은 관객에게 있었다.

"회사가 부도나고 8개월쯤 놀았습니다. 그 사이 약 2백50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또 할 수 있다' '내가 당신 영화에서 얼마나 용기를 받았는지 아는가, 힘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스타도 아니고 일반 기업인일 뿐인데, '아, 내가 좀 다른 일을 해왔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더군요."

그를, 그의 영화를 지지하는 관객이 있는 한 영화와 그의 만남은 계속된다. G

글 · 박은주(조선일보 기획취재부 기자)

스포츠조선

이봉우는 1960년 일본 교토 출생으로 도쿄조선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제3대학(소르본누벨) 대학원을 수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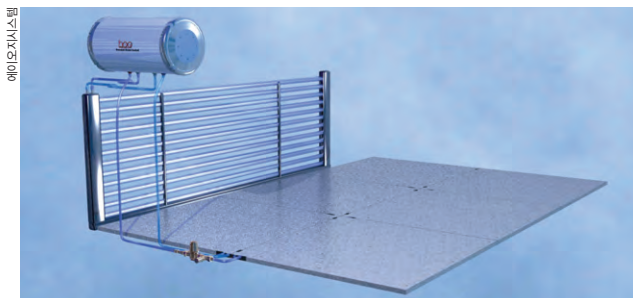
제작 영화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1993년), 〈KT〉(2002년 · 베를린영화제 경쟁부문 출품), 〈아무도 모른다〉(2004년 · 칸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 〈박치기〉(2005년 · '키네마준보 선정 베스트10' 1위, 일본아카데미 우수상 등 수상), 〈훌라걸스〉(2006년 · '키네마준보 베스트10' 1위,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작품상), 〈유레루〉(2006년 · 일본 아카데미상 주연남우상, 조연남우상, 제59회 칸영화제 감독주간 초청작)

일본 배급 영화 〈브래스드 오프〉(영국), 〈투게더〉(중국), 〈서편제〉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오아시스〉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등(한국)

디자인은 기본… 따뜻해 그리고 알뜰해…

한겨울 추위 이기는 중소기업 개발 아이디어 난방기 총출동

12월이 다가오면서 겨울나기 막판 준비에 여념이 없다. 추위 걱정 없는 따뜻한 겨울을 위해선 주거환경이나 생활패턴에 따라 난방용품을 잘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능과 디자인은 기본이고 건강을 챙겨주고 전기료 부담도 덜어주는 중소기업 개발 다기능 아이디어 난방기구들을 소개한다.

온돌장군 전자파 걱정 없는 바닥 난방

에이오지시스템

찬바람이 불면 뜨끈한 아랫목이 그리워진다. 꽁꽁 언 손을 앞세워 후끈거리는 아랫목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녹일 때의 따스함을 잊을 수 없다면 온수 온돌난방기 '온돌장군'을 추천한다. '아침에 이불 밖으로 빠져나가기가 괴로울 정도다(네이버 아이디 corea777)'라는 사용평처럼 제대로 된 시골집 아랫목을 아파트에서도 느낄 수 있다.

에이오지시스템이 개발한 온돌장군은 전기장판이나 전기히터를 대체할 수 있는 바닥 난방기구다.

아연강판을 가공한 갈바륨으로 만든 15밀리미터의 얇은 패널 사이에 온수관을 통과시켜 난방을 하는 원리로, 가볍고 조립이 간편해서 일반 가정에서 주부들도 손쉽게 시공할 수 있다.

다이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타이머가 부착돼 원하는 시간만큼만 난방을 할 수 있는 등 조작이 간편하다. 원하는 공간에만 난방을 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3.3제곱미터당 월 유지비용 8천원대로 전기료 부담도 덜 수 있다.

일반 전기식 보일러에 비해 보일러통이 작아 공간 활용이 유리하다는 점도 알뜰 살림꾼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선택 이유다.

www.aog.kr

바이썬 원적외선 복사열로 쾌적한 난방기

코퍼스트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실내 난방이 필수지만 그 때문에 발생하는 실내 건조, 산소 소모, 먼지나 소음, 진동, 각종 유해가스 발생 등의 문제는 달갑지 않다. 전기난방기 전문업체인 코퍼스트의 '바이썬'은 원적외선 복사열 난방기로 쾌적한 난방을 가능하게 해준다.

온풍기나 보일러처럼 대류, 송풍을 통해 열을 전달하지 않고 태양열과 같은 원리인 복사열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열효율이 높고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된다. 은나노 첨가로 항균·탈취 효과를 높였으며,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 효과로 혈액순환 증진과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도 기대할 수 있어 난방과 실내 위생, 건강관리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천장에 설치하므로 설치가 간편하고 공간이 절약되며 제품 파손의 우려가 적어 유지보수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작동 후 약 4분 이내에 본격적인 난방이 시작돼 빠른 시간에 난방을 할 수 있다.

사용 공간에 따라 저온형과 고온형으로 구분돼 일반 가정, 상업시설, 산업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www.kofirst.com

에이오지시스템

전자파 걱정 없이 따뜻한 아랫목 효과를 볼 수 있는 온돌장군은 특히 임산부나 영·유아를 둔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에스워머 책상 밑에 붙이는 초절전 아이디어 난방기

워머로워

난방이 제대로 되는 사무실인데도 책상 밑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아 얼굴은 후끈거리는데 발끝은 시린 경우가 있다. 온풍기로 난방을 하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몰리고 찬 공기는 발밑으로 가라앉아 생기는 현상이다.

이 증상은 평소 수족냉증에 시달리는 여성들이라면 더욱 심해진다. 그래서 '월동 준비'를 위해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1인용 난방기구를 구입하는 직장인들도 꽤 된다. 하지만 나만을 위해 난방기를 놓자니 전기세 눈치가 보이고 좁은 사무실에서 화재 걱정도 든다. 은근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스트레스다.

이런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개인 난방기가 있다. 난방용품 제조업체 워머로워가 만든 '에스워머'는 날씬한 디자인으로 사무실 바닥이나 데스크 옆에 부담 없이 세워둘 수 있다. 강력한 자석을 이용하면 탈·부착이 가능하다.

일반 난방기처럼 실내 산소를 연소시키지 않고 대신 음이온(1시시당 6백80개)을 방출해 사무환경이 더욱 쾌적해진다. 전력소비량은 시간당 2백20와트로 전기료 걱정도 줄일 수 있고, 안전한 패널히터로 만들어 화재 위험도 거의 없다.

에스워머의 가장 큰 장점은 원적외선을 방출한다는 점이다. 고밀도의 원적외선 복사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기 때문에 책상 밑이나 사무실 바닥에 설치하면 업무시간 내내 반신욕을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www.shoop.co.kr

따스한하루 스마트폰 충전하는 디지털 손난로

드림퓨즈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아무리 옷을 든든하게 입어도 추위가 몸 안으로 스며든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핫팩이다. 하지만 한두 시간이면 따스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짐이 되는 핫팩은 들고 나가기엔 귀찮고 빈손으로 나가기엔 아쉬운 애물단지다. 외출 준비로 한창 바쁠 때 일일이 전자레인지로 데워야 하는 번거로움도 핫팩을 꺼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충전해 사용하는 디지털 손난로 '따스한하루'를 사용하면 이런 고민에서 해방돼 하루 종일 핫팩의 따스함을 만끽할 수 있다.

'꽃보다 남자'의 김현중이 F4 동료들에게 선물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따스한하루는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2시간까지 지속돼 출퇴근 시나 낚시, 등산 등으로 장시간 추위에 노출돼도 끄떡없다. 3단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해 더욱 편리하다.

폭발 위험이 없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자체에 USB 포트가 있어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일반 전화기, MP3 충전도 문제없다. 2천8백 밀리암페어의 대용량이라 아이폰4 기준으로 연속 동영상 재생 13시간, 음악 재생 연속 42시간, 무선인터넷과 영상통화도 연속 9시간, 연속대기 시간은 무려 7백시간 이상을 지원한다. 디지털 라이터, 전자식 뜸 점화기 등 '디지털로 열 올리는' 히트 상품들을 개발한 드림퓨즈에서 만들었다. G

www.life-station.co.kr

글 · 이윤진 기자

"식품인증마크 알면 건강이 보여요"

식품 관련 인증제도 총정리

식품인증마크는 식품을 구매할 때 외관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특성들을 알기 쉽게 표시해 소비자가 상품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환경오염과 유전자 조작 식품의 등장, 수입산 식품, 농약 및 후처리 약품 등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전한 먹을거리를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증마크들을 총정리했다.

•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제도

아무리 싱싱해 보이는 농산물이라도 재배 과정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불안감을 떨치긴 힘들다. 오염된 환경에서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닌지, 농약 사용량은 적정한지 소비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 설령 정성껏 기른 농산물이라 해도 포장이나 유통 단계에서 농약이나 후처리 약품을 치게 되면 문제다.

이런 우려를 덜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관리와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을 보증하는 인증마크가 바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다.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가 없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인증마크다.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냉동만두, 시판 김치, 포장두부, 포장육, 계란…. 식탁에 오르는 대부분의 식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에는 HACCP('해썹' 또는 '해십'이라 함)이라는 인증마크가 주어진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입에 들어가는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해요소를 규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 위생관리체계를 말한다. 인증을 원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7개 식품류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7개 의무 인증 적용식품은 ①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②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③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④빙과류 ⑤비가열음료, ⑥레토르트식품 ⑦김치류 중 배추김치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친환경적인 조건으로 재배한 농산물에 주어지는 인증마크다.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기 위해선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분량만 사용해 재배해야 한다.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의 사용량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축산물에도 친환경 인증이 가능한데 이 경우엔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로 표기한다.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전환 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유기축산물 : 유기축산물 인증 기준에 맞게 재배되거나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해 생산한 축산물.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대신 권장량의 3분의 1 이내의 화학비료를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항생·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 사료를 인증 기준에 따라 급여해 생산한 축산물.

저농약농산물 : 권장량의 2분의 1 이내로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농약을 살포해 재배한 농산물. 농약 사용은 가능하지만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 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잔류농약이 검출돼야 저농약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동아DB

각종 환경오염과 제조업체의 안전 불감증, 수입산 식품 급증 등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식품인증마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 표시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들이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증제도다.

인증받은 유기원료(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유기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 주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인 방법이란 화학적으로 합성된 첨가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방사선 조사(照射)를 비롯한 오염물질과의 접촉 없이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 지리적 표시등록

이천 쌀, 여주 쌀, 상주 곶감, 보성 녹차 등 특정지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지닌 농산물들이 있다. 지리적 표시등록은 이처럼 원산지 지역과 특정 농식품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에 붙는 마크다. 지리적 특산품의 보호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6개 품목이 지리적 표시 농산물로 지정됐고, 이러한 표시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 따라 지적재산으로 분류돼 국제적인 보호를 받는다.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국내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써서 위생적인 시설에서 예부터 전승돼온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우수 전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다. 현재 인증받은 품목은 한과류, 엿, 장류, 참기름, 김치류, 미숫가루, 메밀가루, 두부, 녹차 등 66개 품목이다.

인증을 받은 후엔 연 2회의 시판품 조사와 연 1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되는데, 이때 전통적인 방법이 사용되지 않거나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현장조사를 중단하게 된다.

• 대한민국 식품명인제도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인정하고 보호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전통식품과 일반식품의 2개 분야로 나눠 해당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등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에 종사한 사람을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해 식품 명인이 만든 제품의 포장과 용기 또는 송장 등에 붙이거나 인쇄할 수 있다. G

글 · 이소연 객원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식품안전정보서비스 식품나라 www.foodnara.go.kr

"감기 걸렸다고 항생제 무조건 먹지 마세요"

식약청, 항생제 오·남용 방지 위해 공개강좌 운영

감기에 걸리면 항생제를 먹어야 빨리 나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단순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항생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기 쉽다.

일반적으로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므로 감기에도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감기는 보통 1, 2주 만에 회복되기 때문에 굳이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는 세균성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 2차 감염이 생겨 섭씨 38도 이상으로 열이 심해지거나 호흡곤란이나 가슴에 통증이 있을 때인데, 이때도 의사의 처방을 먼저 받아야 한다.

항생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몸에 쌓여서 내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조건 적게 먹는다고 내성이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항생제는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복약을 임의로 중단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항생제 내성 피하려면 복용 원칙 지켜야

그럼 항생제의 내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생제 내성을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용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미생물과 곽효선 연구관은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혹시 모를 전파를 막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늘 신경 써야 한다. 이와 함께 세균감염 질환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접종은 꼭 받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월 12일 이와 같은 내용의 항생제 내성균 전파 차단 등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시도 보건소와 교육청에 배포했다.

항생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항생제 내성은 완전한 퇴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항생제에 대해 저항능력이 생겨 정작 필요한 때에 항생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는 것을 말한다. 항생제 내성은 심하면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통해 내성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생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으로 전국 20개 종합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주민 대상 공개강좌를 열었다. 교육을 총괄하는 서울 삼성병원 감염내과 정두련 교수는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내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의료진과 환자 모두 제대로 알고 쓰면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G

글 · 정고은 객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kfda.go.kr

동아DB

감기에는 물을 많이 마시고 푹 쉬는 게 최고의 처방이다. 항생제는 세균성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 2차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만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

"재능과 물품 함께 나눠요"

사이버 머니로 봉사 주고받는 'e-품앗이' 인기

일러스트·남동윤

"유모차 드립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집에 두고 있던 것입니다. 깨끗이 빨아놓았는데 얼룩이 조금 들었어요. 아기 욕조도 같이 드려요. 희망 금액은 1만 문(門)입니다."

"주말에 딸아이가 한자시험을 보러 가는데 저희 부부가 일이 있어서 대신 데려다주실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2만 문(門)입니다."

예전에 두레, 향약과 함께 마을공동체의 상부상조 정신을 보여준 대표적인 것이 품앗이였다. 돈 대신 노동력이나 물건을 교환하는 품앗이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마을경제에도 이바지해왔다. 그런 품앗이가 서울에서 부활했다.

서울시 복지재단 내 서울 품앗이센터가 11월 1일 개설한 서울 e-품앗이 홈페이지에 가면 시민들이 도움을 주고받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e-품앗이란 내가 가진 재능과 서비스, 물건을 가상화폐를 통해 교환하는 것.

위의 사례처럼 1만 문에 내놓은 유모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생겨 거래가 이뤄지면 계좌에 가상화폐 1만 문이 적립된다. 1문의 가치는 1원과 같고, 적립된 화폐는 다음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서울 e-품앗이에서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양하다. 생활용품 외에도 육아, 학습지도, 가사, 이·미용, 의료와 같은 서비스도 거래가 가능한 것이 특징.

육아·학습지도·가사·의료 등 서비스 거래도 가능

서울시 복지재단 송성숙 사업지원부장은 "물품 거래만 하는 것과 달리 재능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고용시장에도 도움이 된다. 실직자들은 지금 당장 노동시장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다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e-품앗이 사업은 노원구와 양천구에 사는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가입자 중 신청자 1백명으로 꾸려진 '노원품앗이'와 '양천품앗이'를 대상으로 했다.

e-품앗이는 구 단위 미만의 작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늘리더라도 구 단위 이상으로 공동체를 크게 묶지 않는다는 게 운영 원칙이다.

서울시 성은희 복지정책팀장은 "서로의 합의하에 가격을 결정하고, 면대면으로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성공한 지방 품앗이 사례나 해외 사례를 보면 오래도록 쌓인 신뢰가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송성숙 부장은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나 동 단위로 지역 품앗이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해 사라지고 말았다"며 "서울시는 체계화된 거래 장터만 마련해주고 거래의 활성화는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복지재단은 서울 e-품앗이 참여자들이 서로 얼굴을 익히고 지역에 관한 관심사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11월 27일 품앗이 회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다. G

글·정고은 객원기자

서울 e-품앗이 poomasi.welfare.seoul.kr

"유기농 햅쌀 막걸리로 세계인 입맛 사로잡겠다"

전남대 양조과학기술연구소장 김진만 교수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이나 일본의 사케(청주)처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막걸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유기농 햅쌀로 막걸리를 빚는 대학교수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전남대 양조과학기술연구소 김진만(53 · 생명화학공학부 교수) 소장. 미생물공학을 전공한 김 교수는 지난해 8월 본격적으로 유기농 햅쌀 막걸리 제조에 들어가 10월 초 제품을 시판했다.

일반 막걸리와 달리 아스파탐이라는 인공 감미료를 넣지 않고 벌꿀을 사용해 막걸리 고유의 향과 맛을 살렸다. 쌀도 장성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인 365생쌀을 사용해 품질을 높였다.

그가 만든 막걸리는 크게 두 가지다. 살균주인 '사미인주'와 생막걸리인 '365생탁'. 사미인주는 천연벌꿀로 발효시키고 페트병 대신 유리병에 담아 유통기한을 30일로 늘린 고급 막걸리다.

전통적인 기법에 김 교수가 특허를 낸 이중발효기술과 미생물 제어기술 등 8가지 기술이 혼합됐다. 저온에서 1차 발효를 한 뒤 냉온에서 2차로 숙성 발효시켜 특유의 맛과 영양성분을 극대화했다.

무엇보다 벌꿀을 가미해 항균성을 높이고 미생물 제어를 통해 유통기한을 늘렸으며 숙취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일반막걸리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제조기법으로 만들어진다면, 사미인주는 과학과 전통기법이 어우러져 빚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라 벌꿀이 만든 천연당에 의한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미해 부드럽고 목 넘김이 좋은 막걸리를 만들어냈다. 고급 일식집과 한정식집에 일반 막걸리보다 2, 3배 비싼 값에 팔려나가면서 주문이 쇄도하는 등 반응이 좋다.

"세상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술이지만, 이 일에 정성을 들이고 싶습니다."
김진만 교수가 자신이 개발한 '사미인주'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천연벌꿀 이용한 '건강 막걸리'로 세계시장 도전

입소문을 타고 대기업에서 기술 제휴를 문의해오는가 하면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의 고향 방문 때 행사주로 사용되기도 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캘리포니아의 와이너리를 둘러보고 막걸리에 관심을 가졌다는 김 교수는 장성의 막걸리공장을 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폐교를 막걸리공장으로 활용한 그는 교실을 공장으로 만들고 복도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며 제조공정을 볼 수 있게 했다. 여건이 되면 외국의 와이너리처럼 직접 막걸리 생산 과정을 본 뒤 시음을 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막걸리 카페도 열 예정이다.

내년에는 국내에 대리점을 내고 일본과 중국, 미국 등지에도 수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역에 남아도는 쌀을 활용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막걸리 제품은 주로 수입쌀이나 재고미를 원료로 만들어 숙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많고 품질이 낮다. 이 때문에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질 좋은 양조미를 사용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막걸리는 용기 안에 미생물을 담아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술"이라며 "전통주의 미생물을 연구해 독특한 향기를 지닌 차별화된 술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G

글 · 형민우(연합뉴스 전남지사 기자)

함께라는 건…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더 큰 대한민국의 힘! '함께'의 힘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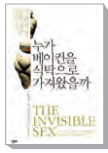
마음 따뜻해지는 책과 함께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어느새 다가왔다. 추운 날씨 탓에 웅크리며 집 안에 있기보다는 가까운 도서관이나 서점에 들러 마음의 양식을 채워보면 어떨까. 이달에도 어김없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좋은 책 선정위원 10명이 문화,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선정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좋을 10권의 책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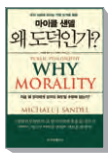
글 · 김민지 기자

고야

전후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홋타 요시에가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1746~1828)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 모두 4권. 저자는 유럽문학을 전공한 지식인으로서 일본 군국주의와 국가주의에 환멸을 느끼며 고야를 통해 유럽의 근현대 양상을 그린다.

홋타 요시에 지음 · 김석희 옮김 / 한길사 펴냄 · 각 2만5천원 **추천자** 정과리(연세대 국문과 교수) "화가 고야의 눈으로 바라본 유럽론의 모범적 사례"

누가 베이컨을 식탁으로 가져왔을까

현대 고고학에서 잊혀진 존재로 자리 잡은 선사시대 여성의 역할에 주목했다. 이 책은 여성들이 만든 바구니, 밧줄, 그물 등이 실제 생활에서 더 혁명적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J. M. 애도배시오 외 지음 · 김승욱 옮김 / 알마 펴냄 · 1만6천5백원 **추천자** 김기덕(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선사시대 여성의 역할을 다양한 사례로 재미있고 쉽게 서술"

왜 도덕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이번엔 '도덕'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첫 단계로 도덕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마이클 샌델 지음 · 안진환, 이수경 옮김 / 한국경제신문 펴냄 · 1만6천원 **추천자** 김형철(연세대 철학과 교수) "한국 정치에 필요한 도덕적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

퓰리처상을 수상한 교육 전문기자인 저자가 현행 미국 입시제도의 비리와 부조리에 대해 파헤쳤다. 이 책에서 미국의 편법적인 특혜입학 등에 대한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대니얼 골든 지음 · 이기대 옮김 / 동아일보사 펴냄 · 1만3천원 **추천자** 강정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입시사정관제도의 맹점을 비판했다"

끝나지 않은 추락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쓴 세계경제 분석 보고서.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끝났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조지프 E. 스티글리츠 지음 · 장경덕 옮김 / 21세기북스 펴냄 · 2만9천8백원 **추천자** 박원암(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세계경제와 자본주의를 쉽게 소개하는 경제 입문서"

1만 년의 폭발

인류 진화가 '현재진행형'이며 아직도 폭발적으로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이들은 '유전역사학'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진화생물학자들과 사뭇 다른 논의를 전개한다.

그레고리 코크란 외 지음 · 김명주 옮김 / 글항아리 펴냄 · 1만5천원 **추천자** 장경애(동아사이언스 경영기획실장) "문명의 발달이 인류 진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해볼 수 있다"

사진의 극과 극

'극과 극'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뚜렷하게 대별되는 두 작품을 선정해 독특한 관점으로 사진을 풀이했다. 한 쌍의 두 낱말에 따라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상상하는 재미를 얻을 수 있다.

최현주 지음 / 학고재 펴냄 · 1만8천원 **추천자** 이주은(성신여대 교육대학원 교수) "흥미로운 단서를 통해 사진을 새로운 관점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

전을 범하다

고전 뒤집어 읽기를 시도했다. 권선징악과 충효사상 대신 폭력과 일탈, 욕망과 위선으로 가득 찬 모습을 파헤친다. 이를 통해 시대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더불어 인간 속성에 대한 통찰을 배울 수 있다.

이정원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 1만2천원 **추천자** 탁석산(철학자) "우리 고전의 재해석에 앞장서는 책"

유럽의 발견

런던에 살고 있는 건축가 겸 도시사회학자인 저자가 건축과 도시에 대해 쓴 교양서. 저자만의 유럽문화 키워드인 문화예술, 랜드마크, 녹색을 중심으로 15곳의 도시 건축물을 소개한다.

김정후 지음 / 동녘 펴냄 · 1만5천원 **추천자** 손수호(국민일보 논설위원) "유럽 건축에 담긴 역사와 문화, 사회상을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다"

아빠 몰래 할머니 몰래

교훈과 재미를 동시에 주는 그림책. 폐지 모으는 할머니에게 밤마다 몰래 선행하는 아버지를 보고 이를 함께 따르는 딸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진다.

김인자 글 · 심수근 그림 / 글로연 펴냄 · 1만2천원 **추천자** 오은영(동시 · 동화작가), 서정숙(그림책 평론가) "소외계층을 남몰래 돕는 부녀의 따뜻한 마음이 잘 표현돼 있다"

어진 마음

글과 그림 · 최영순

진기한 풀과 아름다운 꽃은 바람을 거슬러서는 향기를 전할 수 없지만
어진 사람의 꽃은 그 향기 어디고 두루두루 퍼진다. - 법구경

‘운명과 사랑’의 아름다운 공존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 〈백조의 호수〉

전세계 발레 팬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 〈백조의 호수〉가 우리나라를 찾아온다. 이 작품은 차이코프스키의 유려한 음악과 흡입력 있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수많은 안무가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클래식 발레의 고전이다. 하지만 이번 무대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이번 공연은 33년간 볼쇼이발레단의 수장을 맡아 발레단에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준 유리 그리가로비치의 안무로 꾸며진다. ‘20세기의 발레 영웅’ ‘안무의 천재’라는 찬사를 받는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인 차이코프스키를 위해 〈차이코프스키 발레〉라는 이름으로 〈백조의 호수〉를 재해석했다.

기존 작품에선 단순한 악마에 불과했던 로트바르트를 지그프리트 왕자의 무의식을 좌우하는 천재적인 존재로 해석해 ‘운명과 사랑’의 치열한 싸움을 묘사하는 등 우리가 알고 있던 평면적인 인물 해석에서 벗어나 등장인물 간의 갈등과 고뇌를 그려넣었다.

1막 ‘악마와 왕자의 남성 2인무’ ‘광대의 36회전’ ‘궁정의 왈츠군무’와 2막 각 나라 공주의 춤에 삽입된 ‘러시안 춤’ 등 기존 작품에는 없는 춤들로 더욱 두드러진 솔리스트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그리가로비치 버전만의 매력이다.

로열발레단의 퍼스트 솔로이스트 최유희와 국립발레단의 프리마돈나 김주원이 오데트 역을, 볼쇼이발레단의 스타 알렉산더 볼치코프와 ‘라이몬다’에 이어 2번째로 그리가로비치의 무대에 서는 정영재가 지그프리트 역을 맡아 호흡을 맞춘다. G

글 · 이윤진 기자

일시 12월 7~12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B석 1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87-6181 www.sac.or.kr

● 고교생을 위한 국악 체험 〈국립극장, 고고고!〉 – 국악 음악회 〈환상(幻想)〉 & 교과서 연극 〈봄봄〉

교과서에 실린 국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국악 체험 공연인 〈국립극장, 고고고!〉의 특별공연이다. 고등학생을 위한 국악 음악회 〈환상(幻像)〉과 연극 〈봄, 봄〉을 만날 수 있다.

일시 12월 7~15일 평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관람료** 단체 7천원(30명 이상), 개인은 별도 문의
문의 02-2280-4286 www.ntok.go.kr

●● 전시회 〈조선을 일으킨 땅, 함흥〉

‘함흥에서 열린 과거 급제 의식’, ‘함흥내외십경도’ 등 함흥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작품 30여 점을 통해 조선시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는 함흥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시 2011년 2월 13일까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중·근세관 테마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2077-9045~7,9085 www.museum.go.kr

●
●●

*온(溫)맵시란? 여름철 노타이 차림의 쿨맵시 캠페인에 이은 겨울철 따뜻하게 옷입기(내복입기, 겹쳐입기) 캠페인입니다.

온(溫)맵시로 따뜻하게 실내온도 20℃!

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겨울철,
내복 착용만으로 체감온도가 3℃ 상승합니다.
온 국민이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만 낮추면 난방에너지의 20%가 절약되며,
대한민국 전체로는 1조8천억원이 절약됩니다.

www.nis.go.kr

우리 가까이 111
국가안보는 생활입니다

행복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11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의 관심이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국가를 지키는 111

간첩, 좌익사범, 테러, 국제범죄, 산업스파이, 사이버안보위협
신고전화 111